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지역학석사학위논문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

-<인민일보> 기사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China's Foreign Policy in the Period of Xi Jinping  
- Focusing on Text Mining Analysis on the Articles of  
<People's Daily>

2021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중국학과

김다인

국 제 지 역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  
- <인민일보> 기사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hina's Foreign Policy in the Period of Xi Jinping  
- Focusing on Text Mining Analysis on the Articles of  
<People's Daily>

지도교수 리 단

이 논문을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중국학과

김 다 인

김 다 인의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8월 27일



위 원 장    사회학박사    이 중 희 (인)

위    원    문학 박사    김 창 경 (인)

위    원    정치학박사    리    단 (인)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6
1. 시진핑 시기 중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	6
2. 텍스트마이닝 활용 연구 .....	15
제3절 연구 방법과 논문 구성 .....	18
1. 연구 대상 및 범위 .....	18
2. 연구 방법 .....	19
3. 본 논문의 구성과 모형 .....	21
제2장 이론적 논의 .....	23
제1절 매스미디어와 외교정책 .....	23
1. 매스미디어 .....	23
2. <인민일보>와 중국의 대외정책 .....	25
제2절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	27
1. 빅데이터 .....	27
2. 데이터마이닝 .....	28
3. 텍스트마이닝 .....	30
4. TF-IDF .....	31
5. 토픽모델링(LDA기반) .....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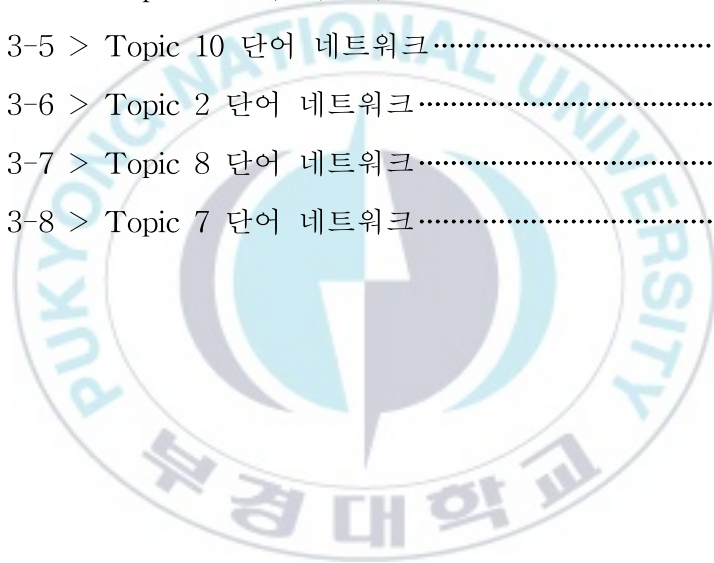
제3장 <인민일보> 기사에 대한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35
제1절 시진핑 시기 외교정책의 핵심 빈도 분석 결과	35
제2절 시진핑 시기 외교정책 토픽모델링	38
1. 토픽모델링 결과	38
2. 분석과 평가	45
제3절 주요 토픽 분석 결과	49
1. 중국의 대 한반도 전략-대화와 협상 ( Topic 5 )	49
2. 시진핑 시기 중·미 관계 ( Topic 10 )	51
3. 김정은 시기 북·중 우호관계 ( Topic 2 )	53
4. 아시아운명공동체 구축 ( Topic 8 )	55
5.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 Topic 7 )	58
<b>제4장 결론: 요약과 시사점</b>	<b>61</b>
제1절 요약	61
제2절 한국의 대외정책에 주는 시사점	64
1. 한반도 정세에 대한 안정적·능동적 관리	66
2. 한·중 관계의 내실화 추구	67
3. 한·미 동맹관계의 안정화 관리	69
<b>참고문헌</b>	<b>71</b>

## 표 목차

< 표 2-1 > 데이터마이닝 분석 과정 .....	29
< 표 2-2 > 텍스트마이닝 분석 과정 .....	31
< 표 2-3 > TF-IDF 공식 .....	32
< 표 3-1 >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	44
< 표 3-2 > 토픽이 나타난 문서 분류표 .....	47
< 표 3-3 > Topic 5 TF-IDF 기준 상위100개 단어 .....	50
< 표 3-4 > Topic 10 TF-IDF 기준 상위100개 단어 .....	52
< 표 3-5 > Topic 2 TF-IDF 기준 상위100개 단어 .....	55
< 표 3-6 > Topic 8 TF-IDF 기준 상위100개 단어 .....	57
< 표 3-7 > Topic 7 TF-IDF 기준 상위100개 단어 .....	59

## 그림 목차

< 그림 1-1 > 본 논문의 연구모형 .....	22
< 그림 2-1 > LDA 문서 생성 과정 .....	34
< 그림 3-1 > 상위 500개 단어 워드 클라우드 .....	36
< 그림 3-2 > TF-IDF 상위 500개 단어 워드 클라우드 .....	37
< 그림 3-3 > 토픽 연관 네트워크 .....	48
< 그림 3-4 > Topic 5 단어 네트워크 .....	50
< 그림 3-5 > Topic 10 단어 네트워크 .....	52
< 그림 3-6 > Topic 2 단어 네트워크 .....	54
< 그림 3-7 > Topic 8 단어 네트워크 .....	56
< 그림 3-8 > Topic 7 단어 네트워크 .....	59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21세기의 국제관계에서 중국의 부상은 가장 주목 받는 화제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2010년에 일본을 추월하며 중국의 G2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중국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으로 국제정치를 좌우할 협력 관계로 강조 되었다.<sup>1)</sup> 2012년 중국 공산당 제18차 대표대회와 2013년의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시작으로 중국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시대가 개막되었다. 새로 등장한 시진핑 정부는 후진타오(胡錦濤) 제4대 지도부까지의 ‘중국의 위대한 부흥’,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평화발전’ 등의 기조에 대한 지속과 동시에 새로운 국내적, 국제적 정세를 바탕으로 자국의 국력과 걸 맞는 국제적 책임과 권리, 역할을 중요시 하는 전임 지도자들과 차별화 되는 시진핑 정부 자신만의 ‘중국의 꿈’(中國夢)을 선언하였다.<sup>2)</sup>

‘중국의 꿈’은 두 개의 100년 목표로 잡았다. 이는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까지 ‘전면적 샤오강 사회 실현’과 2049년 건국 100주기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목표 실현 등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은 어떠한 세력도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진전하는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sup>3)</sup>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국내적 발전과 안정은 물론이고 대외

1) 김준형 (2012), “G2 관계 변화와 미국의 대중정책의 딜레마”, 『국가전략』 제18권 제1호, pp.5-7.

2) 박병광(2013),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정책”, 『전략연구』 제60권, p.13.

3) “시진핑, 중단없는 ‘중국몽’ 강조...어떤 세력도 막을수 없다” 파이낸셜 뉴스, 2019.10.01., <https://www.fnnews.com/news/201910011735519714>, (검색일:2021.03.31)

적 측면에서 부상 자체를 새로운 근거로 삼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sup>4)</sup>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개도국’보단 ‘강대국’의 정체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sup>5)</sup>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대담한 대외정책을 추구<sup>6)</sup>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시진핑 시기 중국의 외교는 덩샤오핑(鄧小平), 장쩌민(江澤民)의 시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시기의 중국 외교는 기존의 도광양晦(韜光養晦)의 기초에서 화평발전(和平發展)이라는 적극적인 성향을 띠는 기조로 개념이 전환 되었다.<sup>7)</sup> 이러한 외교정책 기조의 변화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추구하는 것으로 비추어볼 수 있다.

시진핑 집권 1기, 즉 취임 직후 중국은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최우선시 하였다. 중국은 장쩌민시대부터 국제사회와의 불충돌과 상호존중, 협력 윈-윈(win-win)을 강조해왔다. 후진타오 시기부터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며 미국과의 대등한 위치를 강조하였으며 미국에게 자국의 ‘핵심이익(核心利益)’에 대한 구체적 수용을 강조하였다. 또한 후진타오시대에는 중국과 미국을 협력 동반자로서 21세기 신형 대국관계로 만들어 나가자고 언급했다.<sup>8)</sup>

중국의 이러한 외교 행보에 대해 국제사회는 지역패권을 비롯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은 평화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국 공산당 19차 대표대회에서 ‘평화와 발전’에 대한 재차 강조와 함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및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sup>9)</sup> 제시하

4) 이문기(2018), “시진핑시기 ‘중국의 꿈’, 국내정치 맥락과 대외정책의 변화”,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6권 제1호, p.8.

5) 김관옥(2016), “미국과 중국의 외교패권경쟁”, 『국제정치연구』 제19권 제1호, p.18.

6) 정귀화 (2015), “중국의 외교정책과 한중관계”, 『대한정치학회보』 제23권 제3호, pp.145-146.

7) 정귀화 (2015), 앞의 글, p147.

8) 김관옥(2016), 앞의 글, p.16.

9) 유동원(2017) “시진핑시기 중국외교정책 분석”에서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는 중국의 꿈과 민족부흥을 목표로 평화, 협력, 상생, 공영을 원칙으로 적극적 국제문제에 개입을 하며 공정하고 균형된 국제질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였다. 중국은 ‘신형대국관계’에서 새로 확대된 개념으로 ‘신형국제관계(新型國際關係)<sup>10)</sup>,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를 제시 및 강조하였다.<sup>11)</sup> 중국은 ‘신형대국관계<sup>12)</sup>’의 상위 개념인 ‘신형국제관계’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틀 안에서 자국의 ‘책임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상대 국가의 핵심이익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경쟁과 협력을 주장하였다. ‘인류운명공동체’는 지구촌이라는 측면에서 ‘지구는 하나이고 국가들은 같은 세계 속에 있다’는 것으로 고취하며 국가 간의 공통된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중국의 꿈’을 언급하며 세계가 좋아야 중국이 좋으며 중국이 좋아야 세계가 좋을 수 있다고 중국과 세계의 공동번영을 강조하였다.<sup>13)</sup>

위와 같이 중국은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전략적 목표로 신형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에 대한 고취와 함께 세계 기타 국가 인민들과의 상호존중, 평등호혜, 발전과 안전을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sup>14)</sup> 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라는 이념하에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비롯한 구체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비전을 제시하여 국가의 주권과 안전, 평화발전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을 중요시하고 있다.<sup>15)</sup> 이를 위하여 중국은 2013년부터 ‘주변외교(周邊外交)’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언급되는 중국의 패권 추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시

10) 중국 공산당 18차 당 대회에선 자국의 외교를 대국외교, 주변외교, 개도국외교, 다자외교, 공공외교로 나눠 설명하였지만 19차 당 대회에선 ‘신형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논의 되었다. ‘신형국제관계’의 확립을 통해 자신은 전체를 다 아우르는 진정한 강대국이라는 의도가 있으며 ‘세력과 갈등에 휘말리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11) 서정경 (2018), “시진핑 2기 정부의 외교전망 -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 정치보고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4권 제1호, pp.10-11.

12) 혁신적 사고를 통해 대국 관계의 새로운 경로 모색, 상호 신뢰와 공동 발전, 평등과 상호간의 양해 및 상대방의 핵심이익에 대한 존중, 적극적 행동과 실질적 협력, 우정을 다지는 등의 광범위한 교류를 촉진하는 관계 구축.

13) 리단(2018), “중국외교 3.0: 시진핑 시기의 변화와 지속”, 『중국학』 제65호, pp.379-401.

14)王毅(2015),“构建以合作共赢爲核心的新型國際關係”,『國際問題研究』第3期, p.6.

15)楊洁勉(2017),“中國特色大國外交戰略思想的發展和挑戰”,『同濟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28卷 第4期, p.32.

키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자국이 평화적이고 주변 국가들과 운명을 함께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 동안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 및 정치관계를 기반으로 미국 주도의 지역 권력을 겨냥해 주변국가를 자국의 편으로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세계전략은 결국 기존의 미국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세계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셈이며 이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빚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중·미 수교 이후 갈등과 협력으로 조정되었던 양국관계가 전면적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미관계의 이러한 전략적 구도는 강대국들의 동북아 지역 세력 다툼의 전초지인 한반도에 그대로 투사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간의 균형적인 발전은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대외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미관계가 갈등적 국면으로 진입하는 전환점에서 한국은 어떻게 한·중관계와 한·미관계를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향후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관리, 동북아 문제,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이 어떻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라는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의 외교적 지혜를 요구한다.

중국의 대외정책이 한반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 한국의 중국 대외정책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조명을 심도있게 비춰주었다. 그러나 그 동안 중국의 대외정책 연구는 대부분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질적, 정성적인 방법에 치중해 있으며 양적방법에 근거한 연구결과물은 극히 부족한 편이다.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회과학연구 예컨대 교육, 언론, 관광, 사회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빅데이터 연구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외정책 연구방법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기법 중의 텍스트마이닝 토픽모델링을 통하여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국가의 정책에 대한 해석, 대외 이미지 홍보 및 합리화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중국의 <인민일보 (人民日報)>는 중국의 당과 국가 기관지로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 그렇기에 <인민일보>에 대한 정확한 판독은 중국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인 것이다. 시진핑 시기 중국의 외교는 역대 기타 지도자들보다 더 적극적인 태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이 스스로 주장한 ‘평화’, ‘공생’, ‘발전’과 달리 주변국가에서는 우려의 눈길을 주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외교적 공세에 대해 세계질서에 대한 도전이라 비판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인민일보>에서 보도된 시진핑 시기의 외교정책에 대한 기사를 중심으로 하는 텍스트마이닝 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중국외교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한국어판 <인민일보><sup>16)</sup>는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보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시진핑 시기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인민일보>의 중국외교정책 보도 자료 분석은 외교정책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러한 분석이 한반도 및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인민일보> 및 ‘인민망(人民网)’의 한국어판에 보도된 시진핑시기 외교정책 관련 키워드를 선별하고 (주)사이람에서 개발한 넷마이너4.0 (Net-Miner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진핑 시기 외교정책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본 연구는 중국의 외교정책 연구방법에 새로운 접근법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였으면 한다.

---

16) <인민일보> 온라인 사이트 인민망 해외판을 통한다면 현 시진핑 정부가 국외로 언급하고자 하는 대외 이미지 구축으로 인해 국내에서 보도되는 <인민일보> 보도 보다는 상대적으로 공산 지배적인 부분이 적을 것이라 판단돼 객관적인 시선의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에 인민망 해외판 한국어 버전으로 연구 대상을 잡았다.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1. 시진핑 시기 중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 1) 중국의 외교정책 개관

시진핑 시기 중국은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국제질서 주도권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다. 중국 외교정책의 행방은 지역질서와 국제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에 중국의 대외정책은 중국외 기타 국가의 시선을 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꾸준히 진행되어왔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이 또한 필요하다.

##### (1) 한국 연구자의 시각

하도영(2012)<sup>17)</sup>은 “시진핑 시대의 중국 대외정책 전망”에서 G2로 미국과 함께 중국이 중요한 국가로 거론되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도영은 차별화된 측면에서 시진핑 지도부의 전략적 추진으로 인해 중국은 국제사회의 규칙제정과 의제설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 서술했다.

이영학 (2013)<sup>18)</sup>은 “중국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외정책 전망”에서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후 중국이 미국과 갈등, 협력의 패턴이 반복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한국은 중·미 간의 이러한 관계 변화가 한반도와 한국에 투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며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

17) 하도영(2012), “시진핑 시대의 중국 대외정책 전망”, 『국제관계연구』 제17권 제1호, pp.119-145.

18) 이영학 (2013), “중국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외정책 전망”, 『아태연구』 제20권 제1호, pp.29-58.

정,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등 국가목표와 합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급하고 있다. 이영학은 현재 중국 외교정책 현황에 따른 한국의 국가 이익 보호를 위한 전략과 그에 맞는 정책 수립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문기(2018)<sup>19)</sup>는 “시진핑 시대 ‘중국의 꿈’, 국내정치 맥락과 대외정책의 변화”에서 중국을 세계2위 경제대국으로 칭하며 시진핑 시기 중국의 꿈이 국가발전의 목표가 되면서 나타나는 중국 대외정책 변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문기에 따르면 시진핑 집권 이후 당 중심의 권력이 강화되어 가고 있으며 시진핑 시대 대외정책은 변화와 지속성을 보이고 있다. 그로 중국의 대외정책에서의 공세적 경향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리단(2018)<sup>20)</sup>은 “중국외교 3.0: 시진핑 시기의 변화와 지속”에서 시진핑 시기 중국은 기존 지도부와 큰 틀에서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강한 자신감으로 선명하고 적극적인 태세전환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국제정치 환경에 적극적 대응 여부를 둘러싼 역할론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었음을 언지하며 국제질서관에 대한 인지와 자국이 구상한 이상적 국제 질서에 대한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리단은 중국은 평화적, 상생적, 공헌적 이미지 구축에 대해 중대한 과제로 여기며 외교목표를 기존의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닌 친구를 찾기 위함으로 전환했다는 언급과 함께 시진핑 정부에선 ‘인류운명공동체’, ‘신형국제관계’, ‘공동이익’, ‘적극적 유위관’을 제기하며 글로벌 거버넌스에 깊이 참여하여 국제질서 개혁의 방향을 인도하고자 하는 외교적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겪으며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조화, 지역 이슈문제와 관련한 적절한 대응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 주장 하고 있다.

19) 이문기(2018), “시진핑 시대 ‘중국의 꿈’, 국내정치 맥락과 대외정책의 변화”,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6권 제1호, pp.89.-116.

20) 리단(2018), “중국외교 3.0: 시진핑 시기의 변화와 지속”, 『중국학』 제65호, pp.379-401.

이돈구(2019)<sup>21)</sup>는 “시진핑 시기 중국의 “新국제질서” 구축시도에 관한 연구 -“신형대국관계” 제기의 배경과 전망을 중심으로”에서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이 G2로서 위상에 어울리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서술하며 중국은 변화된 국제적 위상에 따라 대외정책 핵심내용 또한 변화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돈구에 따르면 한반도가 두 강대국의 대외정책 및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흐름 속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고자 할 전망을 하였다. 또한 이돈구는 중국이 향후 미국과의 필연적 충돌을 주장하고 있다.

## (2) 중국 연구자의 시각

환종저(阮宗澤, 2016)<sup>22)</sup>은 “인류운명공동체: 중국의 “세계의 꿈”(人類命運共同體：中國的“世界夢”)에서 “중국의 꿈”과 “함께 공유하는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이 “세계의 꿈”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중국 특색 대국외교라고 칭하였다. 환종저(阮宗澤)는 인류운명공동체를 신형 국제관계에 이은 또 다른 중국의 중대한 국제관계 이념이라 언급하며 중국의 이익이 국제화가 된 만큼 중국의 도전 또한 글로벌화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환종저는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과정에서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가 더욱 정교해질 것이며 생동감있게 빛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조우안핑(周安平, 2018)<sup>23)</sup>은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에 대한 탐구(人類命運共同體概念探討)”에서 인류운명공동체의 개념에 대해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조우안핑은 ‘인류운명공동체’를 가정, 민족, 국가와 인류의 다양한 운명을 함께 공유해나가는 공동체 형태를 가리킨다고 설명하였으며 실제 공

21) 이돈구(2019), “시진핑 시기 중국의 “新국제질서” 구축시도에 관한 연구 -“신형대국관계” 제기의 배경과 전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252.

22) 阮宗澤(2016), “人類命運共同體：中國的“世界夢””, 『國際問題研究』 第1期, pp.9-21.

23) 周安平(2018), “人類命運共同體概念探討”, 『法學評論(雙月刊)』 第4期(總第210期), pp.17-29.



동체로서 인류의 주체적인 지위를 회복하며 가치공동체로의 양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우안핑은 또한 ‘인류운명공동체’는 국가주권의 절대성과 배타성을 약화시켰으며 ‘같은 이념’, ‘같은 이익’을 강조함으로써 충돌과 분쟁을 해소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제면(楊洁勉, 2018)<sup>24</sup>은 “신 시대 중국 외교 전략의 사고와 기획(新時代中國外交的戰略思維和謀劃)”에서 중국은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기여하는 동시에 세계의 평화와 발전, 협력을 추진하고 상생하는 시대의 키워드로 중국 특색 대국외교전략의 두 축이 인류운명공동체, 신형국제관계라고 주장한다. 양제면은 중국 외교의 원동력이 국가의 개혁개방과 인류운명공동체 확립, 그리고 신형국제관계 등의 중국 특색 대국외교 전략의 계획과 실현이라 설명하였다. 양제면은 국가가 대소(大小), 강약(強弱), 빈부(貧富)와 관계없이 모두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시사하며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국외교 전략의 실천과 실행이 국제사회에서 지혜와 중국 방안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인류 역사 진보의 주요 기획자·촉진자·수호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양·귀리차오(楊楊, 郭立橋, 2019)<sup>25</sup>는 “신형국제관계 내용 변화 및 원인 분석(新型國際關係內涵的演變及原因探析)”에서 중국 외교 이념의 변화, 중국 국익과 국제이익관계의 변화, 중국 지도자의 세계정세 판단의 변화 등으로 인해 신형국제관계의 내용이 시대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양양과 귀리차오는 신형국제관계가 화평발전의 길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지혜지공을 토해서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양양과 귀리차오는 이러한 신형국제관계는 새로운 중국 특색 외교의 이념으로 중국 외교의 발전의 이론적인 가치와 실천적 의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24)楊洁勉(2018), “新時代中國外交的戰略思維和謀劃”, 『外交評論』, 第1期, pp.1-15.

25)楊楊·郭立橋(2019), “新型國際關係內涵的演變及原因探析”, 『國際觀察』 第1期, pp.1-13.

중국은 세계 각 국가들 간의 상호존중과 평등호혜로 신형국제관계를 맺고자 한다고 설명하였다.

## 2) 한·중관계에 관한 연구

중국과 한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현재 수교 30주년을 바라보고 있다. 양국 간 외교, 안보, 경제 등의 분야에서 많은 발전<sup>26)</sup>을 보이며 우호적 관계로 이어져왔지만 사드, 동북공정, 북한 비핵화 등의 변수의 영향으로 한·중관계는 굴곡을 겪기도 하였다. 그 동안 한국과 중국의 연구자들은 정치·외교, 경제·무역, 인적교류 등 제반 영역에서 양국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으로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양국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시진핑 시기 한·중관계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1) 한국 연구자의 시각

이상현(2013)<sup>27)</sup>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협력”에서 G2시대 중국은 미국과 함께 새로운 국제질서 중심축이 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중국의 부상엔 미·중관계의 필연적인 재편이 예고된다 서술하였다. 이상현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협력의 방향을 분석하고 모색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장하였다. 또한 이상현은 아태지역의 전략적 상황변화가 한국 외교의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였으며 아태지역의 정세는 미국의 재균형정책과 중국의 반응에서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술하였다.

26) 김홍규(2011), “한중 수교 20주년과 한중관계 평가: 미래 한중관계를 위한 방향과 더불어”,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9권 제3호, pp.212-215.

27) 이상현(2013),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협력”, 『전략연구』 제60권, pp.69-104.

김홍규(2015)<sup>28)</sup>은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사고의 변화와 함의”에서 중국이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대외정책을 입안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시진핑의 개인적 권력을 언급하며 대한반도 정책 역시 시진핑을 설득시킬 수 있다면 변화가 더욱 가시화 될 것 이라 설명하고 있다. 시진핑시기 외교정책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선 변화의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의미있는 정책적 함의를 안겨준다고 시사하였다. 김홍규는 현재 한·중관계는 한·미관계, 북·중관계의 종속변수에서 점차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중이라 주장하며 한·중관계는 여전히 불안정성이 크고 위기관리 마저 불완전, 미흡하기에 중국과는 실제적인 전략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즉 김홍규는 한국이 중국 내의 변화를 적극 이해하면서 변화를 추동하고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한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황재호(2020)는 “수교 이후 한·중관계의 평가와 신형관계(新型關係)를 위한 정책제언”에서 현재의 시진핑 정부에선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한국의 이러한 신형주변관계 중의 국가라고 언급하였다. 황재호는 중국이 그들의 전략적 로드맵 마련을 위해 한·중관계를 북·중, 남·북 따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중·미관계란 큰 틀에서 이러한 양자관계를 고려할 것이라 설명하였다. 따라 중·미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 한·중관계의 뉴노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황재호는 중국과 한국은 서로에 대해 지지와 이해를 기대 하였지만 문제가 생기면 중국은 곧장 모든 관계를 중단하고 축소시킨다는 설명과 더불어 한·중 양국은 개방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만 상호 보완적인 발전 가능성이 클 것이며 동북아 및 범태평양 협력과 연계 되어 대륙과 해양 등 더 다양한 협력이 가능해 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황재호에 따르면 한·중관계는 단순히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실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하였다.<sup>29)</sup>

28) 김홍규(2015),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사고의 변화와 함의”, 『신아세아』 제22권 제4호, pp.36-59.

고영은(2020)<sup>30</sup>)은 “미중 패권 갈등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현재 동북아는 미·중 패권 경쟁 가운데 위치해있다 언급하며 양국의 패권갈등으로 인한 한반도에 안겨지는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세계의 질서가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의 다양한 개입으로 질서가 유지해왔지만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주시해야 하며 중국의 부상으로 잠재되어있던 갈등 요소들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영은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중국과는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관계를 형성하기에 미·중 갈등이 심화되어질수록 한국의 국가전략이 미·중 간 선택을 강요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렇기에 고영은 부담스러운 상황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한국이 장기적 적절한 전략을 세우지 않을 경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남주 외(2020)<sup>31</sup>)는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와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생각하는 강대국과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강대국의 역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남주 등 연구자들은 중국이 글로벌 강대국을 목표로 지향하지만 서구적 규범이 지배하는 기존 질서가 요구하는 강대국 역할과 차이가 상당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 자신의 영향력의 인정과 중국 특색 가치와 제도의 인정을 요구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가하는 모든 목적은 ‘중국의 꿈’을 실현시기 위함이 가장 크다고 주장하였다.

---

29) 황재호(2020), “수교 이후 한중관계의 평가와 신형관계(新型關係)를 위한 정책 제언”, 『아시아문화연구』 제53권, pp.187-209.

30) 고영은(2020), “미중 패권 갈등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신학과 목회』 제 54권, pp.185-206.

31) 이남주·문익준·안치영·유동원·장윤미(2020),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와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20권 제3호, pp.1-224.

## (2) 중국 연구자의 시각

자오리신(趙立新, 2020)<sup>32)</sup>은 “한중관계는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中韓關係: 能否迎來“第二個春天?”)”에서 사드 배치 갈등 이후 현재 중·한 양국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제관계의 단순할 수 없는 복잡성을 설명하고 있다. 연구자에 따르면 세계의 급변하는 정세에서 한·중관계의 기회와 곤경 상황을 똑똑히 인식하는 것이 한·중관계 발전의 전제라고 언급하였다. 자오리신은 한·중 관계에 대해 기존의 반성 및 딜레마에 대한 인식을 통해 쌍방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상호 신뢰를 심화하여 협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지양룽판(姜龍范, 2020)<sup>33)</sup>은 “문재인 집권 전후 중한관계에서의 핵심의제 및 해결방안(文在寅執政前後影響中韓關係的核心議題及化解方策)”에서 한·중 수교 이후 현재까지 양국관계는 전방위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설명하며 한중동맹이 역사 발전의 필연적 추세로 예측하였다. 지양룽판은 북한, 대북정책, 사드와 같은 현안을 언급하며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의 핵심국익에 훼손할 수 있는 한국의 이중성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지양룽판에 따르면 사드 갈등 이후 한·중관계가 한·미동맹에 발목 잡혔다는 주장과 함께 이러한 주장이 한·중관계 발전의 한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양룽판은 중국이 한국을 현재든 미래든 그들에게 있어 가장 주요한 주변국 중 하나라 주장하면서 양국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수호하고 유지하는 중요성을 언급한다. 또한 한국이 중국의 안보 관심사에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함을 시사하며 중국은 ‘일대일로’ 플랫폼으로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의 호감도를 확실하게 증강하여 한·중 운명공동체 구축에 힘써야 한

32) 趙立新(2020) “中韓關係: 能否迎來“第二個春天?””, 『延邊大學學報』 第53卷 第2期, pp.5-15.

33) 姜龍范(2020), “文在寅執政前後影響中韓關係的核心議題及化解方策”, 『東疆學刊』 第37卷 第4期, pp.92-99.

다고 주장한다.

치통슈옌(齊桐萱,2020)<sup>34</sup>는 “한·중관계 개선의 한계성(中韓關係的改善限度)”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었지만 이는 한·중관계의 변화 추세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치통슈옌은 중·미의 전략적 경쟁 속 한국이 경제는 중국에, 안전은 미국에 의존하는 헤징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안보만 미국에 의존하는 현재 한국의 헤징 전략을 비판하였으며 한국과 중국이 관계를 개선할 여지에 대해 제한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치통슈옌은 한국의 소국주의 성향으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며 한미동맹을 한국 안보의 초석으로 보고 중국이 강대해지는 것을 걱정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이 북·중 관계 개선을 꺼리고 한·중관계에선 경제 이익 측면에서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 한중관계는 개선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위엔밍·왕이남(孟月明 王毅男2020)<sup>35</sup>은 “2019-2020년의 한중관계: 회고와 전망(2019 ~ 2020 年中韓關係: 回顧與展望)”에서 중국과 한국은 사드 갈등을 겪은 후 양국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언급하며 이것이 중·일·한 동아시아 3개 국가와 전반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력 발전을 이끌게 될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명위엔밍·왕이남에 따르면 한·중관계의 개선은 큰 국제적 구도, 특히 한반도 정세와 중·미관계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하며 불확정적인 요소들을 직면해야 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의 대 중국 외교는 미국이라는 가장 큰 변수가 한·중관계 회복에 놓여 있으며 북한의 핵문제, 미국의 아·태전략, 중·미관계 등 요인들이 한반도의 정세변화 및 한·중관계의 순조로운 발전 여부에 영향을 주다고 주장하였다. 명위엔밍과 왕이남은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정세가 중국과 한국 양국 국민의 공동 이익의 요구

34) 齊桐萱(2020), “中韓關係的改善限度”, 『國際政治科學』 第1期, pp.161-163.

35) 孟月明·王毅男(2020), “2019 ~ 2020 年中韓關係: 回顧與展望”, 『當代韓國』 第1期, pp.3-13.

이자 노력해야하는 방향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 2. 텍스트마이닝 활용 연구

현재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텍스트마이닝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문헌 연구의 한계점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 또한 인공지능의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지식정보들의 결합이 주목받고 있다.

이수정·최두영(2020)<sup>36</sup>의 “사회과학을 위한 양적 텍스트 마이닝: 이주, 이민 키워드 논문 및 언론기사 분석”은 사회과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양적 텍스트 분석을 이주, 이민 키워드로 통계 분석을 실시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기법을 설명하며 분석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사회과학적 의미를 가지는 추출 작업을 다차원 데이터 분석이라 언급하고 있으며 문서 데이터에서 고도의 신뢰성을 가진 정보를 위해선 사람이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에 최근 ICT 기술 발전과 더불어 컴퓨터의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 연구에 필요한 노동력을 최소화 하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가영(2020)는 “『경제연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한 북한 경제정책 변화 연구”에서 북한의 정기간행물인 『경제연구』를 통해 북한의 정책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통적인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오류에 빠지는 한계를 언급하며 텍스트마이닝 분석 방법을 통한다면 전통적 문헌 분석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서술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 질적 연구와

---

36) 이수정·최두영(2020), “사회과학을 위한 양적 텍스트 마이닝: 이주, 이민 키워드 논문 및 언론기사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5호, pp.118-127.

비정형 데이터들의 분석 기법을 병행함이 각 연구방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상호보완적 연구가 진행되어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소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머신러닝의 장점을 활용하여 체계적이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 하고 있다. 37)

강윤주(2019)<sup>38)</sup>의 “토픽 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한 국내 무용학 연구 분야 탐색”은 무용학연구 동향을 텍스트마이닝 기법(토픽모델링 분석 기법)을 활용해 서술한 논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지식정보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 분야의 지식과 기술의 융합을 중시하는 시대로 변화하였다고 설명하며 넘쳐나는 정보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새로운 연구와 학문이 필요하다 언급한다. 기본원칙은 존재하지만 학문 간의 활발한 네트워크에 근거한 지식을 사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내고자 한다고 시사 하고 있다.

오윤정(2019)<sup>39)</sup>의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로동신문』 핵실험 관련 보도 분석”은 노동신문에서 보도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보도와 대내 선전선동 분석을 실시한 논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의 차별성에 대해 전통적 연구 방법은 정성적 분석 방법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연구자 간 의견 편차가 컸음을 서술 하며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활용한다면 검증 가능성을 통해 기존 연구 방법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주장하였다. 노동신문은 조선 노동당의 기관지로 북한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기에 노동신문 기사 분석은 북한 당국의 핵실험에 대한 입장은 물론이며 주민들의 인식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시사 하고 있다.

37) 이가영(2020), “『경제연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한 북한 경제정책 변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193.

38) 강윤주(2019), “토픽 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한 국내 무용학 연구 분야 탐색”,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237.

39) 오윤정(2019),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로동신문』 핵실험 관련 보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07.



요컨대,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시진핑 시기 중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은 주로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국의 대외정책을 살펴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미국과 북한을 한·중 양국관계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바라보고 있다. 중국의 연구자들은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줄타기를 우려하고 있고 한국의 연구자들은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중관계와 한·미동맹 간의 균형적 발전에 착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파악과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의 중요한 이론적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정성적·질적연구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외정책연구의 방법의 다양성을 탐구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도입하여 <인민일보>에 보도된 중국외교 정책 관련 기사로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중국의 외교정책 연구는 물론 정치·외교 분야의 연구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 제3절 연구 방법과 논문 구성

#### 1.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중국의 당과 국가 기관지인 <인민일보> 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중국에 수많은 언론 매체가 있지만 그 중 <인민일보> 는 최대 규모의 신문이자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며 당의 정책에 입각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며 중국 여론의 흐름을 주도한다.<sup>40)</sup>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2년 시진핑 정권의 출범부터 현재 2021년까지이며, 분석 내용으로는 중국의 <인민일보> 인터넷 사이트 인민망(人民网) 한국어판에서 보도된 시진핑 시기 중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주요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인민망(人民网) 한국어판에서의 중국관련 보도들은 모두 <인민일보> 중국 본사에서 직접 취재해 보도한 것을 번역한 것이다.

시진핑 정부의 중국의 외교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 이다. 이러한 중국외교정책 기조를 근간으로 삼으며 동북아 및 한반도와 관련된 중국의 외교정책과 함께 연구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위와 같은 취지하에 본 연구에서는 ‘시진핑’, ‘외교정책’, ‘인류운명공동체’, ‘주변외교’, ‘대국외교’, ‘신형국제관계’, ‘중국 꿈’, ‘협력 윈윈’, ‘한반도’, ‘사드’, ‘조선(북한)<sup>41)</sup>’을 키워드로 지정하였다. 키워드들과 관련된 기사제목, 기사 내용 등은 총 872개로 수집되었으며 본 연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40) 한강우 (2019), “習近平 집권1·2기 권력집중화 양상 비교 분석-人民日報 1면 보도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제22권 제2호, pp.4-5.

41) 중국에선 북한을 朝鮮 cháoxiǎn ‘조선’으로 칭한다. 북한은 중국 외교정책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였기에 북한을 뜻하는 단어로 ‘조선’을 키워드에 삽입하였다

## 2.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텍스트마이닝 기법의 하나인 토픽모델링(LDA기반)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연구로는 중국의 외교정책, 특히 시진핑 시기 중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논문 및 보고서, 그리고 각종 인터넷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어 문헌은 주로 KCI에 등재된 논문을 이용하였고 중국어 문헌은 CNKI에 등재된 연구결과물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활용된 보고서 등 자료는 주로 대외정책연구원을 비롯한 국책연구소의 연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앞에서 제시되어진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토픽모델링(LDA기반)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워드 클라우드(Word-Cloud), 단어네트워크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도구로는 (주)사이람에서 개발한 넷마이너(Net-Miner4.0) 프로그램<sup>42)</sup>을 활용하였다. 먼저 인민일보에서 수집한 기사들을 분석이 가능한 정형화 작업을 통해 총 872개로 Excel파일화 하였다. 데이터는 컴퓨터 안에서 행과 열로 처리해야 분석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안에서 다큐먼트(document)문서 데이터를 말뭉치(corpus)<sup>43)</sup>로 변환시켜지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로 구조화 시켜진다. 텍스트마이닝에선 단어를 텀(term)이라 표현한다. 텀이 모여 다큐먼트가 되고 다큐먼트가 모여 말뭉치가 되는 것이다. 다큐먼트는 하나의 행이 되는 것이고 텀, 즉 단어는 변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통해 텍스트마이닝의 데이터인 비정형 데이터들을 정형화시키는 것이다.

---

42) 넷마이너는 2001년 사이람에서 개발한 사회연결망 분석 소프트웨어로 관계 데이터에 대한 탐색적 분석과 시각화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파이썬 언어를 사용한 스크립트 프로그래밍으로 뉴스, SNS, 인터넷, 보고서, 연구논문 등을 텍스트 데이터에서 단어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관 핵심 단어의 세부 주제 파악이 가능하다. “넷마이너 홈페이지”

<http://www.netminer.com/main/main-read.do> (검색일:2021. 03. 21)

43)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문서가 되고 문서가 모여 하나의 말뭉치가 되는 것이다. 하나의 말뭉치를 엑셀 sheet 하나 데이터 분석 세트라 이해하면 된다.

본 논문은 위의 과정을 통해서 단어 필터링 과정을 진행하며 연구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유의어, 지정어, 제외어를 설명 변수에서 제거하였다.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개의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추출되도록 지정하는 유의어(Thesaurus), 이름이나 상호와 같은 고유 단어가 그대로 추출되도록 지정하는 지정 (Defined Words), 추출되지 않도록 제외하고자 지정하는 제외어(Exception List)<sup>44)</sup>를 text파일로 정리 후 필터링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등장빈도 워드 클라우드를 실행시켜 상위 500개의 단어를 추출하는 시각화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문서의 핵심적 단어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분석기법인 TF-IDF 문서 수 기준 상위 500개의 단어를 추출하여 시각화를 진행하였으며 등장빈도 워드 클라우드와 비교하였다. 이러한 기본작업을 토대로 본 논문은 일반적 단어를 제거하는 노드 필터링을 진행 한 후 토픽모델링(LDA기반)을 통해 토픽별 단어를 추출하고 문서를 분류하였다. 토픽모델링을 통해 추출할 토픽 개수는 최종 12개로 선정되었다. 토픽 수는 연구자가 여러 개의 토픽수를 선정하여 다양한 분석을 해본 후 그 결과들을 가지고 토픽들 간 서로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가장 범주화가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 토픽수를 선택하는 방법<sup>45)</sup>을 택했기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토픽 결정방법에 따라 총 12개로 토픽수가 결정되었다.

---

44) 사이람, 『Net-miner를 이용한 소셜네트워크 분석- 텍스트네트워크 분석 교육』, CYRAM, pp.47-48.

45) 이수상(2015), “독후감 텍스트의 토픽모델링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7권 제4호, p.8.

### 3. 본 논문의 구성과 모형

#### 1) 논문 연구 구성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 중국 외교정책, 특히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의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실증적 연구 분석 방법인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토픽 모델링(LDA기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중국의 외교쟁점 분석과 한국 대외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려한다. 본 연구의 연구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아래 < 그림 1-1 >을 통해 본 논문의 연구모형을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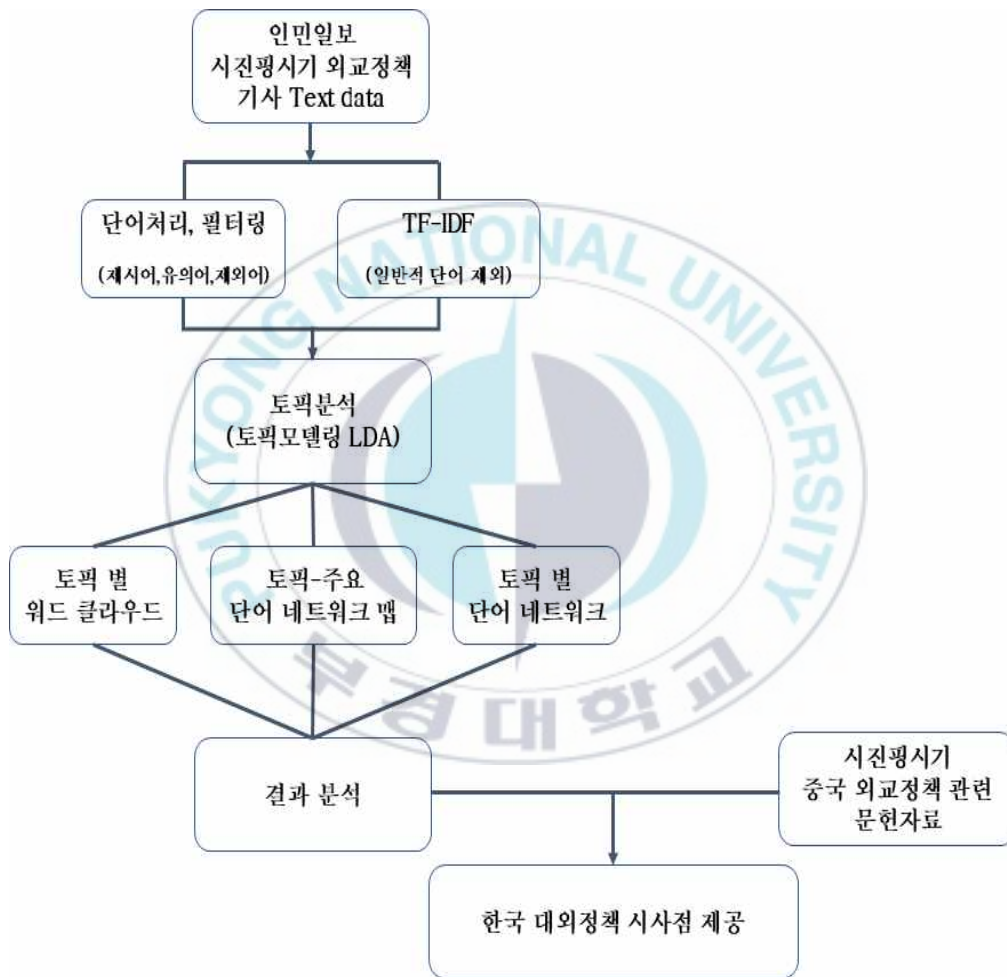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필요성과 목적을 서술하였으며 선행연구 검토는 한국과 중국 학자들의 중국외교 정책, 한·중관계에 관련한 연구자료, 그리고 텍스트마이닝과 관련된 내용을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본 논문의 제3절은 연구방법, 연구체계를 설명하였다.

제2장 이론적 논의는 주로 외교정책 결정에서 매스미디어의 기능과 텍스트마이닝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였다. 제1절은 매스미디어와 외교정책과의 관계를 토대로 <인민일보> 기사와 중국의 대외정책과의 연관성을 소개하였다. 제2절은 데이터 연구방법으로 활용된 텍스트마이닝 개념 설명으로 빅데이터, 데이터마이닝, 텍스트마이닝, TF-IDF, 토픽모델링(LDA기반) 등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토픽 결과에 대한 분석이다. 본 논문은 <인민일보> 기사 토픽모델링(LDA기반) 분석 결과를 서술하려고 하였다. 제1절은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정책의 핵심 빈도 결과 분석과 토픽모델링에 대한 결과 분석이며 제2절은 상위 토픽 주제들을 정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한 토픽주제들에 대한 분석이다.

제4장은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은 본 논문에 대한 종합적인 요약과 정리이다. 제2절 현재까지 진행한 분석 결과 토대로 한국의 대외정책에 주는 시사점 밝히고자 하였다.

< 그림 1-1 > 본 논문의 연구모형



## 제2장 이론적 논의

### 제1절 매스미디어와 외교정책

#### 1. 매스미디어

언론이란 매체들을 통해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문제에 대한 국내적, 국제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sup>46)</sup>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언론은 정책 실현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매스미디어는 의사표현의 주체로서 또는 알권리의 주체로서 활동되어지지만 정보를 편집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특징을 가진다.<sup>47)</sup> 또한 이 활동은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대로 전달되어 져야 하며 외부 세계의 현실 인지창구로서 기능을 하고 정치, 문화의 중개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역할을 한다.<sup>48)</sup> 또한 언론은 정책지도자가 여론을 이용해 국가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감에 한 나라의 정치나 사회에 커다란 정치적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언론은 정책과정의 행위자인 정책 엘리트들과 국민들의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기에 어떠한 정책 과정에선 언론 프레임의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sup>49)</sup> 프레임은 미디어들을 통해 나타나는

---

46) “언론” 네이버 국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95201&cid=46668&categoryId=46668>  
(검색일:2021.03.29.)

47) 계획열·김선택·장영수(2001), “매스미디어의 발전과 기본권 보장”, 『헌법학연구』 제7권 제4호, p.8.

48) 김정아·채백(2008), “언론의 정치 성향과 프레임”, 『한국언론정보학보』 제41권, pp.232-267.

49) 전미선·조원희(2019), “정책형성의 과정에서 전략(strategy), 전술(tactic), 프레임과 프레이밍의 동태성(dynamics):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1호, p.392.

담론을 반영하는 해석적 틀로서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 해당 미디어 들은 특정한 관점을 형성해 줄 수도 있으며 그들만의 가치나 해석을 내포할 수 있다.<sup>50)</sup> 즉 독자들로 하여금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중요 내용과 방향을 이해하게 하며 사회 가치들과 믿음, 행위의 연관성 결정에 영향을 준다.<sup>51)</sup> 정치학의 분야에선 언론 프레임은 권력집단이나 정책 엘리트들이 달성하려 하는 목표를 위해 이용되어지는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기도 한다.<sup>52)</sup>

특히 중국에서는 언론 매체 들을 이용하여 현 정부에서 제시되어지고 있는 목표 달성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sup>53)</sup> 과거 중국 공산당은 정책결정자로서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고도의 개인화 특정 시기가 있었다면 현대화로 갈수록 기존의 개인에 의존한 정책 결정과정에서 집단적인 정책결정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대중매체들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며 대중매체와 외교정책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외교정책 영역이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요소들이 생겨났고 매체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sup>54)</sup>

중국 공산당 18차 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의 권력이 확정되면서 언론 분야와 방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력한 언론 관리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sup>55)</sup> 중국의 언론 매체 들은 개방된 사회 속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시진핑 정부의 방송 정책을 통해 인민들과 각 국가들에게 시진핑의

50) 이상률·이준웅(2014), “프레임 경쟁에 따른 언론의 보도 전략: 언론의 기사 근거제공과 익명정보원 사용”, 『한국언론학보』 제58권 제3호, pp.378-407. ; 양카이·정정주(2015), “중국언론의 한류보도 프레임연구 2009~2014년 인민일보, 중국청년보, 신민만보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5권 제2호, p.8. 재인용

51) 유양(2020), “중국 언론의 성폭력 사건 보도 분석: <인민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66.

52) 전미선·조원희(2019), 앞의 글, p.393.

53) 이순임·강병환(2015), “시진핑 출범 이후 중국 방송정책의 특징과 변화”,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19권 제4호, pp.93-94.

54) 이정남(2014),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인터넷 여론의 역할: 제3차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1권 제3호, pp.37-44.

55) 이순임·강병환(2015), “시진핑 출범 이후 중국 방송정책의 특징과 변화”,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19권 제4호, pp.93-138 ; 유양(2020), “중국 언론의 성폭력 사건 보도 분석: <인민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3. 재인용



리더십을 홍보해 왔다. 중국은 방송정책을 핵심가치와 사상선전의 기지로 간주하여 교육을 통해 전통매체와 신홍매체의 융합발전에 관한 방송정책들에 힘을 쏟고 있다.<sup>56)</sup> 전통적인 대중매체에서는 통제로 인한 토론의 장과 정치와 공적인 사회 현상에 참여하고 관점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통로가 없었다. 그리하여 중국은 전통적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들이 어떠한 정보를 얻고 어떠한 것을 믿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만들었다.<sup>57)</sup>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신홍 매체로 인해 여론이 대외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형태로 변모하게 되면서 중국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대중들의 여론 형성과 비판, 정치 참여로 국제문제와 자국의 대외정책의 해석권을 독점할 수 없다는 점과 권력의 탈중심화 현상 추세에 불안함을 느껴 중국 정부에서는 매스미디어 정책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다. <sup>58)</sup>

## 2. <인민일보>와 중국의 대외정책

중국의 언론 제도는 소비에트 공산주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정부와 언론 기관들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영도하고 영도받는 수직 관계로서 당과 정부는 언론 기관으로부터 강력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sup>59)</sup> 그렇기에 중국 미디어에 제공되어지는 자료들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 이러한 중국 언론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중국 미디어 보도를 통한 당과 정부의 방침, 정책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언론 미디어는 국가적 외교 관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언론

56) 이순임·강병환(2015), 앞의 글, pp.10-15.

57) 洪浚浩“網絡輿論與中國的外交決策” 郝雨凡·林甦編. 『中國外交決策開放與多元的社會因素分析』,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이정남(2014),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인터넷 여론의 역할”, 『아태연구』 제21권 제3호, p.7. 재인용

58) 이정남(2014),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인터넷 여론의 역할”, 『아태연구』 제21권 제3호, pp.4-9.

59) 허재철(2014),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 현상 분석: 신설 기구와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8권 제2호, p.13.

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정보전달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의제 설정과 같은 역할을 통해 다양한 정치 이슈들과 외교적 사안들을 보도<sup>60)</sup>하기에 국가는 미디어에 보도 되는 뉴스를 통해 각국으로 그들의 의견, 시선, 입장을 전달하면서 외교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sup>61)</sup>

<인민일보>는 중국에서 최대 규모의 신문사이자 중국 언론의 중앙 기관지이다. 이들은 인터넷 공유 플랫폼인 인민망(人民网)을 통해 국내에서는 중국어판을 제외한 소수민족 언어판으로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외국어판을 지원하여 당과 정부의 정책, 사건들을 해외로 보도하며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인민일보> 인터넷 플랫폼인 인민망(人民网)은 중국 인터넷 여론에서 ‘길잡이’, ‘선두주자’, ‘튼튼한 버팀목’ 이라 평가 받고 있다. 인민망(人民网)은 신매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터넷 공간을 활용으로 서로의 관점들을 나누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장<sup>62)</sup>으로 대중들에게 정치적인 이슈와 정보를 제공한다.

인민망(人民网)은 국가와 당의 거버넌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63)</sup> <인민일보>에 속해있는 기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국무원 신문 관공실이 지시하는 지침에 맞춰 당의 정책에 입각한 기사를 쓴다. 이러한 이유로 <인민일보> 기사는 지도층은 물론이며 중국 인민들까지 공산당의 사상을 이해시키는 매체로 쓰이고 있다. <인민일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여러 방면의 변화와 정책들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언론 매체인 것이다.<sup>64)</sup> 위와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하는 현재의 <인민일보>는 중국인민들의 일상의 현실을 반영하는 이슈와 사례들을 보도함으로써 인민들의 생각과 인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도를 한다. <인민일보>의 언론 보도 특징

60) 설진아·남궁강 (2007), “<6자회담> 에 관한 텔레비전 외교뉴스 분석”, 『한국방송학보』 제21권 제4호. p.71.

61) 설진아·남궁강 (2006), 앞의 글, p.70.

62) 이정남(2014),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인터넷 여론의 역할”, 『아태연구』 제21권 제3호, pp.37-42.

63) “인민망(people.com.cn)소개”, 2018.3.21.,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어판 사이트 <http://kr.people.com.cn/n3/2018/0521/c414238-9462380.html>, (검색일: 2021.03.30.)

64) 한강우 (2019), 앞의 글, pp.3-4.

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인터넷 뉴스사이트 등 신홍 매체 영향력이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시점을 중시<sup>65)</sup>하고 있기에 중국 언론의 중앙 기관지인 <인민일보>를 통한 뉴미디어 영역과의 융합을 보여준다.

<인민일보>의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대외정책 홍보에도 반영되고 있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그 국가의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과 이해를 도모하려 한다. <인민일보> 한국어판은 바로 이러한 취지하에 운영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외정책 기초, 외교현안과 이슈를 한국어로 번역, 보도하며 한국정부와 국민들부터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간주어볼 수 있다.

## 제2절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 1. 빅데이터

빅데이터(Big Data)란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대규모 데이터를 의미한다.<sup>66)</sup> 기존의 일반적이고 소규모의 데이터를 관리하며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 대량의 정형화된 데이터 또는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의 집합이라 볼 수 있다. 정형화된 데이터 들이라 함은 숫자로 이루어진 수치 데이터들을 의미하고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은 동영상, 이미지, 데이터의 텍스트, 웹 사이트나 블로그의 글 들을 의미한다.

현재는 기존의 사물들이 인터넷화 되면서 주변엔 가늠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정보들과 데이터가 존재하는 빅데이터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sup>67)</sup> 그러

65) 박민순(2011), “중국 언론체제의 특성과 언론환경의 변화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122.

66) 쿠지라 히코우즈쿠에(2017), 『파이썬을 이용한 머신러닝, 딥러닝 실전 개발 입문』, 위키북스, p.2.

67) 강윤주(2019), “토픽 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한 국내 무용학 연구 분야

나 이는 단순히 수량 적으로만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고 있는 정보의 양(Volume)이 방대하다는 것과 변화의 속도(Velocity)가 빠르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속성(Variety)으로 큰 특징을 가진 데이터를 의미한다.<sup>68)</sup> 최근에는 3V에서 5V 및 7V 까지 확장되어 정의를 내리고 있다.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크기(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 (Variety), 진실성(Veracity), 가치(Value), 정확성(Validity), 휘발성(Volatility)로 구성 되어있다.<sup>69)</sup> 이러한 요소들은 각각 데이터의 크기, 빠른 처리 및 분석을 위한 다양한 방식, 다양한 데이터의 유형, 데이터의 신뢰성, 데이터의 유용성, 저장·유효 기간의 중요성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sup>70)</sup>

## 2. 데이터마이닝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여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의 사용이 가속화되고 있다.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은 강력한 자료처리 기능과 자동화 기능을 통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활용하기에 대용량의 데이터 가치를 추출할 수 있다.<sup>71)</sup> Knowledge Discovery in Large Databases(KDD)라는 의미로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지식검색 (발견) 이라는 용어로 설명되며 대용량의 데이터들로부터 가치 있고 암묵적인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이라 한다.<sup>72)</sup> 데이터마이닝은 모든 종류의 데이터들

탐색”,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67.

68) 최승진(2018), “비정형 데이터의 의미 확장과 그래프 모델링을 이용한 개선된 소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

69) 이효준·조시현·성지원·서형준(2019),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동향”,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제2019권 제0호, pp.43-52.

70) 강윤주(2019), 앞의 글, pp.68-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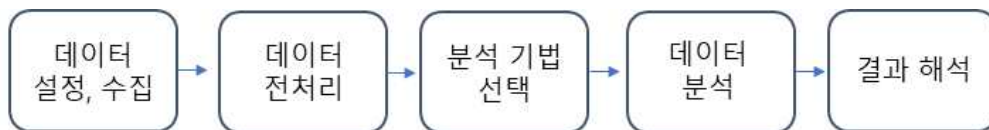
71) Galit Shmueli, Peter C.Bruce Inbal Yahav,Nitin R.Patel Kenneth C. Lichtendahl Jr.(2018),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위한 데이터마이닝 R EDITION』, 이앤비플러스, p.27.

72) 김형태(2018),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품질혁신 방법

이 대상이 된다. 즉, 머신러닝의 기법을 활용하면서 자동적으로 데이터 안의 패턴과 규칙, 관계들을 찾아 유용한 지식을 추출해내 결과해석까지 해주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sup>73)</sup>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분석 과정은 다음 < 표 2-1 > 순서로 진행되어진다.

데이터마이닝의 기법들은 분류분석, 회귀분석, 시계열분석의 주어진 데이터와 정답을 이용하여 미지의 상태나 값을 예측하는 학습방법으로 정확히 분류되어졌는지 예측이 잘 되었는지를 찾아내는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 군집분석, 연관분석, 차원축소의 데이터 자체에서 유용한 패턴과 결과를 찾아내는 학습방법으로, 자료를 의미있는 그룹으로 구분 짓거나 연관성 규칙을 보여주는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시행착오를 거치는 학습과정 속에서 보상함수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하는 방법인 강화학습(Reinforced Learning) 으로 정리할 수 있다.<sup>74)</sup> 이러한 관점들에서 본다면 텍스트마이닝의 토픽모델링 분석기법은 비지도 학습에 속해있기에 텍스트마이닝은 데이터마이닝의 개념에 포함 된다.<sup>75)</sup>

< 표 2-1 > 데이터마이닝 분석 과정



론 연구 : 디스플레이 제품의 불량개선 사례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1.

73) 이혜리(2020),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소비자 상담 내용의 연구- 자동차 보험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8.

74) 김승연·정용주(2017), 『처음 배우는 머신러닝』, 한빛미디어, pp39-44.

75) 조태호(2001), “텍스트 마이닝의 개념과 응용”, 『지식정보인프라』 제5권, pp.76-85.

### 3. 텍스트마이닝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은 텍스트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속 지식을 발견한다는 개념 (Knowledge Discovery in Textual Database) 으로 발표되었다.<sup>76)</sup>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기에 자연어 처리(NLP)에 기반하여 정형화된 수치 데이터가 아닌, 비정형화된 텍스트 데이터를 구조화시켜 분석하는 기법으로 텍스트 안에서 의미있는 패턴을 찾고 다른 데이터와의 연계성을 파악하며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정보,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려는 방법을 말한다.<sup>77)</sup> 텍스트마이닝 분석 과정은 < 표 2-2 > 와 같다.

자연어 처리 기술(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은 자연어를 컴퓨터로 직접 처리할 수 없기에 구조적인 데이터로 가공해 표현하는 방법이다.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자연어’ 인데, ‘자연어’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언어들이기에 인공어와 달리 컴퓨터가 직접 처리할 수 없기에 텍스트를 분석하고 구조적인 데이터로 표현되어야 한다.<sup>78)</sup> 데이터 전처리 방법으로 텍스트 데이터의 불필요한 요소들인 빈칸, 숫자, 느낌표, 특수문자 등을 제거하며 내용 텍스트를 토큰(token)<sup>79)</sup>화 한다. 그 후 형태소를 통해 단어를 잘라낸 후 명사나 형용사로 정리한다.<sup>80)</sup> 영어에선 불용어(stop word), 의미없는 단어들을 구분하지만 한국어는 형태소 분석을 통해 진행되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공한 구조적 데이터를 활용해 텍스트 분석이 진행되는데, 텍스트마이닝에는 단어 출현 빈도를 파

76) Feldman, R & Dagan, I. (1995), “*Knowledge discovery in textual databases*”, 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KDD), 95, pp.1-6.

77) 강주연 · 이이든(2019),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청소년상담1388’ 빅데이터 분석: 2011~2018 네이버 지식iN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제27권 제2호, pp.127-147.

78) 조태호(2001), 앞의 글, p.78.

79) 토큰(token)화란 단어를 의미한다. 토큰화 시켜 나오는 단어나 문장을 구분해 기호에 의해 나누어진 기본 단위라 보면 된다.

80) 윤호민(2021),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레스토랑 고객의 감성분석에 관한 연구 : 외래 관광객의 온라인 리뷰 빅데이터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37-39.

약하는 단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유사한 단어나 비슷한 성격의 단어들로 묶어주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단어 속에서 나타나는 긍정과 부정 등의 감정요소의 정도를 판별하는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 서로 다른 단어가 동시에 나타날 확률에 기초한 단어 간의 연관성을 추출하는 연관분석(association analysis) 등과 같은 여러 통계적 분석법이 존재한다.<sup>81)</sup>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과거 분석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많은 양의 질적 데이터 분석이 쉽게 가능해 졌으며 이 연구 방법을 통해 수많은 연구자들이 비정형 데이터 속 의미를 찾아 해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4. TF-IDF

TF-IDF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핵심적 단어를 추출해 내기위해 사용되어지는 통계기반 기술로서 Term Frequency ‘단어 빈도’ 라는 의미로 문서안의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를 표현하는 값을<sup>82)</sup> 뜻하고 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역문서 빈도’로 DF값의 역수를 취한 값으로 문서집합 속 특정 단어가 얼마나 등장했는지를 표

81)“텍스트마이닝”,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210334&cid=42346&categoryId=42346>, (검색일:2021.03.27.)

82) 이종화 · 이문봉 · 김중원(2019), “TF-IDF를 활용한 한글 자연어 처리 연구”, 『정보시스템연구』 제28권 제3호, pp.105-121.

현하는 값을<sup>83)</sup> 뜻한다. TF-IDF는 어떤 문서에서의 특정 단어의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기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sup>84)</sup> 이 방법은 단순 빈도분석과는 다르게 정교한 방법으로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고 중요도를 높게 보는 것이 아닌 특정문서 속에서 특정단어가 등장하는 수가 많음과 동시에 특정 단어가 다른 문서에서 등장하는 빈도수가 적을 때 그 단어를 특정문서의 핵심어로 간주한다.<sup>85)</sup> 즉, TF-IDF 값이 높은 단어는 해당 문서 내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TF-IDF 공식은 다음 < 표 2-3 >과 같다.

< 표 2-3 > TF-IDF 공식

$$IDF(w, d) = TF(w, d) \times \log \left( \frac{N}{DF(w)} \right)$$

- $TF(w, d)$  : 문서  $d$ 에 단어  $w$ 가 나타난 횟수
- $IDF(w)$  : 단어  $w$ 가 들어가는 문서의 총수
- $N$  : 전체문서의 총수

자료: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p997 재인용.

83) 송지성·안병진(2020), "TF-IDF 알고리즘의 분석법을 활용한 브랜드 디자인 프로세스 개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6권 제1호, pp.234-244.

84) 김승연·정용주(2017), 앞의 글, p.120.

85) 윤호민(2021), 앞의 글, p.55.



## 5. 토픽모델링(LDA기반)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은 텍스트 데이터 속 단어들의 빈도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체 문장의 데이터에 잠재되어진 주제의 토픽들을 추출하여 분류하는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하나로<sup>86)</sup> 대량의 텍스트 자료로부터 나오는 특정 주제를 추출해내는 알고리즘이다.<sup>87)</sup> 텍스트마이닝 분야에서는 연관된 단어들의 집합들을 토픽(Topic)이라 칭하는데, 문서 속 잠재된 토픽 주제어들의 등장 확률을 추정하는 통계적 텍스트 처리기법이다.<sup>88)</sup> 수백 개의 문서들을 일일이 읽어보고 텍스트 속에서 중요시되는 토픽을 파악해야 할 경우 그 주제나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토픽모델링 분석을 이용한다면 빠르고 객관적인 토픽추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연구보고서나 논문, 신문 등에서 동향을 파악하거나 주제를 추출하여 핵심 이슈를 파악하는데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다.<sup>89)</sup>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은 잠재 디리클레 할당 모형<sup>90)</sup>으로 토픽모델링 기법 중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주어진 문서 안의 토픽을 잠재적으로 가정하는 확률모델로 문서상의 특정 주제 확률을 통해 토픽을 추출하는 모형이다. 각 문서의 잠재되어 있는 주제, 각 주제들의 단어 분포를 표현하며 주제와 각 문서별 주제의 비율, 단어들이 각 주제들에 포함될 확률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sup>91)</sup> 즉, LDA의 목표는 잠재적 토픽

86) 진미르·고호경(2019),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한 수학교육 연구 주제 분석”, 『수학교육논문집』 제33권 제3호, p.280.

87) 백영민(2017), 『R을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파주: 한울 아카데미 ; 진미르·고호경(2019),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한 수학교육 연구 주제 분석”, 『수학교육논문집』 제33권 제3호, p.280, 재인용

88) 신동희(2016). 『컴퓨터이셔널 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장윤주(2019), 앞의 글, 재인용, p.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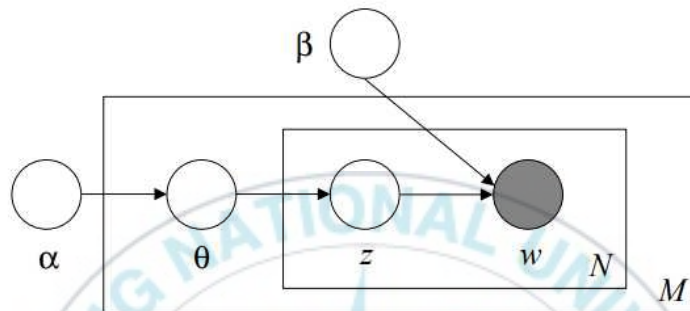
89) Griffiths, T. L., & Steyvers, M. (2004). “*Finding scientific topic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1, pp.5228-5235

90)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pp.993-1022.

91) 류지혜(2018),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보건학 분야 국내학술지 연구동향 분석”, 고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2.

의 구조를 찾아가는 것이며 컴퓨터가 원본을 얼마나 잘 재현해 내는지를 구하는 과정인 것이다. LDA 문서 생성과정은 < 그림 2-1 >과 같다.

< 그림 2-1 > LDA 문서 생성 과정



자료: Armstrong, Freitag, Joachims, & Mitchell, 1995; Han, J., Pei, & Kamber, 2011; Salton & Buckley, 1988 ; 윤호민(2021),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레스토랑 고객의 감성분석에 관한 연구: 외래관광객의 온라인 리뷰 빅데이터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5, 재인용.

< 그림 2-1 >에서  $M$ 은 전체문서 집합,  $N$ 은 특정한 문서 속에 속한 단어의 집합을 뜻한다.  $\theta$ 는 문서들이 각 주제들에 속하는 확률분포를 나타내며 Dirichlet 분포의 매개변수인  $\alpha$ 에 의해 결정된다.  $z$ 는 문서 내에서 단어들이 각 주제들에 속할 확률분포를 뜻하며 이것은  $\theta$ 에 의한 다항분포로 선택된다.  $\beta$ 는 각 주제가 특정 단어를 생성할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분포를 뜻하고 있다.  $z$ 와  $\beta$ 에 의해 실제 문서들의 단어분포인  $w$ 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는  $w$ 만이 실제 문서를 통해 주어진 분포이고 나머지는 모두 잠재변수로 취급된다. LDA기법은 주어진 문서들과 토픽들의 사전확률 분포인  $\alpha$ 와 토픽 내에서 단어의 사전확률 분포인  $\beta$ 의 파라미터 값을 활용한 반복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z$ 와  $\theta$ 를 추정한다.<sup>92)</sup>

92) 박상언·이병량(2017),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한국 문화정책 연구 경향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4권 제3호, p.102. 재인용

## 제3장 <인민일보> 기사에 대한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중국의 시진핑 정부 출범 시기인 2012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중앙 기관지인 <인민일보 (人民日報)> 온라인 사이트 인민망(人民网) 한국어판에서 보도된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정책과 관련된 기사 총 872개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장은 연구 결과를 핵심 빈도 분석, 토픽모델링 결과 및 주요 토픽 등의 내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제1절 시진핑 시기 외교정책의 핵심 빈도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인민일보> 온라인 사이트 인민망에서 보도된 시진핑 시기 중국의 외교정책 관련 기사 872개에 대한 데이터 구조화를 위해 유의어, 지정어, 제외어 지정 단어 필터링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Word는 8,302개, Document 수 867개, Sentence 수 16,595개, Word-Documnet Network 수 108,858개 로 추출되었다. 본 연구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기사 내에서 가장 많이 추출되는 상위 500개 단어들을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를 진행하였다.

< 그림 3-1 > 상위 500개 단어 워드 클라우드 를 통해 확인한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로는 ‘중국’(10,306개), ‘발전’(3,171개), ‘한국’(30,082개), ‘협력’(3,007개), ‘양국’(2,560개), ‘관계’(2,503개), ‘북한’(2,239개), ‘세계’(2,195개), ‘국가’(2,128개), ‘국제’(2,016개), ‘문제’(1,923개), ‘평화’(1,829개), ‘경제’(1,794), ‘미국’(1,762개), ‘일본’(1,720개), ‘시진

평’(1,690개), ‘추진’(1,422개), ‘한반도’(1,417개), ‘공동’(1,323개), ‘지역’(1,149개), ‘말’(1,142개), ‘안정’(1,138개), ‘건설’(1,134개), ‘정상’(1,119개), ‘주석’(1,093개), ‘관련’(1,039개), ‘외교’(1,038개), ‘중요’(1,034개), ‘상호’(970개), ‘대화’(918개) 의 순서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림 3-1 > 상위 500개 단어 워드 클라우드



상위 500개 단어 워드클라우드에서 추출된 단어를 확인 한 후 본 연구는 핵심적 단어 추출을 위해 TF-IDF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단어를 제거하는 노드 필터링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추출되어 보여지는 단어 빈도수의 순위가 높다는 이유가 핵심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에 TF-IDF를 활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확인하였다. TF-IDF 0.2이상 2글자 이상 분석 결과 Word는 5,306개, Document 수 867개, Sentence 수 16,595개, Word-Documnet Network 수 101,492개 로 추출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TF-IDF상위 500개 단어 워드클라우드(Word cloud)를 진행하였다.

< 그림 3-2 > TF-IDF 상위 500개 단어 워드 클라우드



< 그림 3-2 > TF-IDF 상위 500개 단어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확인한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로는 ‘주식’(414개), ‘사회’(405개), ‘대화’(403개), ‘상호’(394개), ‘정상’(394개), ‘해결’(392개), ‘이익’(381개), ‘적극’(377개), ‘미국’(367개), ‘수호’(367개), ‘실현’(367개), ‘전략’(362개), ‘양국’(353개), ‘북한’(347개), ‘각국’(342개), ‘강조’(341개), ‘구축’(326개), ‘협상’(326개), ‘강화’(324개), ‘외교’(322개), ‘한반도’(314개), ‘정치’(312개), ‘역할’(310개), ‘분야’(301개), ‘비핵화’(297개), ‘교류’(296개), ‘역사’(296개), ‘국민’(294개), ‘지속’(293개), ‘성과’(289개) 의 순서로 이어져 나간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인민일보> TF-IDF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TF-IDF 과정 에서 나타난 행위자는 ‘미국’, ‘북한’이며 관련 지역으로는 ‘한반도’가 중심으로 추출되어 보여졌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전략적 목표로는 ‘비핵화’였다. 이는 그 동안 중국이 한반도 전략에서 강조해 온 ‘비핵화’ 이슈와 일치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동안 중국은 평화, 협상, 대화 등을 내세우며 대 한반도 전략의 기조로 강조해 왔다. 본 연구의 TF-IDF 분석 결과는 이러한 중국의 전략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두 가지 빈도 분석을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500개 단어 빈도 분석 ( < 그림 3-1 > 참조 ) 결과와 TF-IDF 단어 빈도 ( < 그림 3-2 > 참조 )를 비교해 확인하였을 때 TF-IDF 상위 500개 단어 워드 클라우드 속 ‘한국’ 이 상위 30위 안에도 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TF-IDF는 단순 빈도분석과 다른 정교한 방법으로 핵심적 단어를 추출해 내는 기법<sup>93)</sup>이기에 아래와 같이 해석된다. <인민일보>에 보도된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정책과 관련된 기사 분석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북한에 비해 한국의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다. 특히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 해결에서 중국은 북·미 간의 협상과 대화를 중요시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 제2절 시진핑 시기 외교정책 토픽모델링

### 1. 토픽모델링 결과

이 연구는 <인민일보> 기사 텍스트를 데이터 전처리, 단어필터링, 노드필터링 과정을 거친 후 토픽모델링(LDA기반) 분석 기법을 활용하는 통계적 방법을 통해 기사 867개 전체 문서 데이터 속 잠재된 주제의 토픽을 추출하고 분류 하였다. 본 연구는 토픽 간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개 토픽 수를 선정하여 다양한 분석을 진행한 후 가장 범주화가 잘 되었다 판단되는 토픽의 수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토픽 수를 12개로 분류하였으며 분류 된 토픽에 따라 네이밍을 지었다. 토픽모델링 결과는 아래의

93) 이종화·이문봉·김종원(2019), “TF-IDF를 활용한 한글 자연어 처리 연구” 『정보시스템연구』 제28권 제3호, pp.105-109.

< 표 3-1 >과 같다. < 표 3-1 >에서는 각 토픽의 5가지 키워드들과 확률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토픽들에 따라 확률 값이 높은 순으로 중요 키워드를 보여준다. < 표 3-1 > 토픽모델링 결과에 따른 각 토픽의 네이밍은 다음과 같다.

Topic1은 ‘일본’, ‘건설’, ‘공동’, ‘아프리카’, ‘총리’ 를 중요 키워드로 보여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제3자 시장 협력은 중국의 국제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중국이 일대일로를 건설하는 새로운 통로가 되었다. 중국은 중·일이 대(對)아프리카 협력에서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민간협력 수요가 강한 것으로 판단하여, 인프라·국제생산·금융·원조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꾀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협력으로 양국 간의 경제·무역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의 발전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의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sup>94)</sup> 중국의 이러한 전략적 의도에서 출발하여 Topic1을 “중·일 양국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협력”으로 네이밍 하였다.

Topic2는 ‘북한’, ‘회담’, ‘정상’, ‘양측’, ‘김정은’ 으로 중요 키워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키워드는 그 동안 중국의 대 북한 정책의 기초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므로 “김정은 시기 북·중 우호관계”로 네이밍 하였다.

Topic3은 ‘역사’, ‘시대’, ‘개방’, ‘인민’, ‘개혁’을 중요 키워드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중국은 ‘계급투쟁주심론(階級鬭爭爲綱)’에서 벗어나 개혁·개방 즉 이른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을 택하여 거대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시진핑은 개혁·개방 40년을 맞이하는 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의 창당,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개혁·개방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추진을 중국 현대사의 ‘3대 역사적 사건’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3대 이정표’로 평가하였다.<sup>95)</sup>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94) 何迪·田惠敏(2021), “中國對非洲開展第三方市場合作的潛力研究——基于中日合作視角”, 『海外投資与出口信貸』第4期, p.16.

95) “新時代推進改革開放的偉大成就和歷史地位”, 中國日報网, 2018.12.20.  
<https://baijiahao.baidu.com/s?id=1620380104487607994&wfr=spider&for=pc> (검색일: 2021.07.10.)

은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방하였다. 시진핑은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 조장에 부임하게 되며 2018년 3월 21일 ‘당과 국가기구 개혁에 대한 심화 방안’ 전문을 통해 새로운 기구 개혁의 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96)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Topic3을 “시진핑 신시대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네이밍 하였다.

Topic4는 ‘경제’, ‘세계’, ‘글로벌’, ‘무역’, ‘회의’ 로 중요 키워드를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중국은 일대일로, 상하이 협력기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등 의 글로벌 프로세스, 중국의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새로운 구도 형성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Topic4를 “글로벌시대 중국의 경제 무역 관계” 로 네이밍 하였다.

Topic5는 ‘한반도’, ‘북한’, ‘해결’, ‘대화’, ‘협상’ 으로 중요 키워드를 보여주고 있다. 2002년 말부터 불거진 북한 핵 문제로 한반도는 동북아 국제정세의 소용돌이의 중심이 되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측면에서 중국의 동북아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중국은 ‘평화와 안전’을 한반도 전략의 기조로 인식해 왔으며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이슈문제에 대해 ‘대화과 협상’을 주장해 왔다. 시진핑 시기 중국은 대 한반도 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강조해 왔다. 예컨대,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 관련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며 공동의 노력,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방<sup>97)</sup>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바탕으로 하여 Topic5를 “중국의 대 한반도 전략-대화과 협상”으로 네이밍 하였다.

Topic6은 ‘미국’, ‘이익’, ‘장관’, ‘최근’, ‘일부’ 등의 단어를 주요 키워드로

96) “習近平為核心黨中央領導改革開放紀實”, 新華社, 2018.12.16.

<https://baijiahao.baidu.com/s?id=1619993111558092343&wfr=spider&for=pc>  
(검색일:2021.07.11.)

97) “如何看待朝鮮半島局勢? 趙立堅: 希望各方通過對話協商解決問題”, 中國經濟網, 2020.06.24.<https://baijiahao.baidu.com/s?id=1670391118764673275&wfr=spider&for=pc>  
(검색일:2021.07.11.)



보여주고 있다. 시진핑 시기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격변기에 진입하였다. 신홍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미국 관계에 대한 비관론적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집권으로 양국 관계를 ‘투키디데스함정’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2005년 8월부터 중국과 미국은 소통을 위한 전략대화 기제를 가동하였다. 2021년 3월 18-19일 미국 측 초청으로 양제츠(楊潔澁)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그리고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무장관,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앵커리지에서 미·중 고위급 전략대화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중국과 미국은 외교안보, 경제, 사이버와 법, 인문사회 등의 영역에서 대화기제를 가동하여 양국관계의 현안에 대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Topic6를 “중·미 양국의 국익 협상과 대화”로 네이밍 하였다.

Topic7은 ‘외교’, ‘시진핑’, ‘유엔’, ‘주석’, ‘세계’ 로 주요 키워드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집권 시기, 특히 중국공산당 19차 대표대회 이후 중국은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 펼치며 ‘신형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 ‘주변외교’ 등을 키워드로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국력과 부합되는 입지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Topic7을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로 네이밍 하였다.

Topic8은 ‘공동’, ‘아시아’, ‘공동체’, ‘운명’, ‘지역’ 으로 주요 키워드를 보이고 있다. 2013년 10월 24-25일 중국은 ‘주변외교 공작회의’를 개최하여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을 주변외교의 이념으로 삼고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시진핑은 “아시아는 세계의 아시아이며 아시아가 운명공동체로 나아가면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며 대세를 잘 파악하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 아시아 운명공동체로의 발걸음을 통해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98) 특히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 변화에 따라 중국은 주변국가와의 외교관계를 조율하

98)王輝耀, “构建亞洲命運共同体”, 2018.07.15.  
([https://www.sohu.com/a/241276488\\_162758](https://www.sohu.com/a/241276488_162758))(검색일:2021.07.11)

려는 행보를 보였다. 중국과 인도는 ‘동랑(洞浪) 사태’를 겪으면서 중-인 정상 간의 만남을 가졌으며 또한 중국은 중·일관계, 한·중관계에 대한 조정을 통해 양자·다자 차원에서 주변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Topic8을 “아시아운명공동체 구축”으로 네이밍 하였다.

Topic9은 ‘안보’, ‘지역’, ‘사드’, ‘전략’, ‘러시아’로 주요 키워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지역·안보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며 양국은 미국의 핵 타격 능력 약화에 입장을 함께 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미 간의 안정 국면에 대한 파괴라는 강한 비난은 물론 사드 배치로 인해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대한 우려도 가지게 되었다.<sup>99)</sup> 이러한 배경에 따라 Topic9를 “사드 배치와 지역 안보 질서”로 네이밍 하였다.

Topic10은 ‘양국’, ‘시진핑’, ‘상호’, ‘중·미’, ‘소통’으로 주요 키워드를 보이고 있다. 이는 Topic6과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시진핑-트럼프 시기 양국이 협력과 경쟁이라는 기존 패턴에서 벗어나 전면적인 경쟁 국면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양국은 대화기제를 통한 ‘소통’을 시도한다. 이에 따라서 Topic10은 “시진핑 시기 중·미관계”로 네이밍 하였다.

Topic11은 ‘교류’, ‘생각’, ‘문화’, ‘대표’, ‘인민’으로 주요 키워드를 보이고 있다. 중국 문화의 ‘저우추취(走出去)’는 중국의 글로벌 전략의 중요한 내용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으로 ‘인류운명공동체’를 구현하려고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로 중국 문화를 전파하며 중국에 대한 이해를 도모시키려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에서 민심 상통(相通)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문화와 인적 교류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중국의 문화 ‘저우추취’ 전략은 ‘저우추취’ 뿐만 아니라 ‘저어진취(走進去)’에서 ‘저우상취(走上去)’로 강화되어 궁극적으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확보해야<sup>100)</sup>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99) 장투오성(2017), “동아시아에서의 사드 갈등: 중국의 관점”, 『동아시아재단』 제77호, pp.1-3.

Topic11을 “중국의 인문·문화 교류”로 네이밍 하였다.

Topic12는 ‘코로나’, ‘세계’, ‘사태’, ‘사회’, ‘방역’으로 주요 키워드를 보이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인류사회는 질병에 대한 대응 과제를 직시하게 되었다. 중국은 코로나19 초기 대응의 부진으로 세계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으나 중국은 그 이후의 적극적 대응과 다른 국가에 대한 방역 물자 지원, 백신개발 등 일련의 행보로 방역외교를 펼치고 있다. 따라서 Topic12를 “팬데믹과 중국의 코로나 방역 외교”로 네이밍 하였다.



---

100) 王義桅(2021), “中外人文交流如何服務构建人類命運共同體?”, 『世界教育信息』第2期, pp.25-26.

< 표 3-1 >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1st Keyword	1st Prob	2nd Keyword	2nd Prob	3rd Keyword	3rd Prob	4th Keyword	4th Prob	5th Keyword	5th Prob
Topic-1	일본	0.119	건설	0.047	공동	0.032	아프리카	0.023	총리	0.012
Topic-2	북한	0.086	회담	0.051	정상	0.028	양측	0.021	김정은	0.018
Topic-3	역사	0.024	시대	0.024	개방	0.019	인민	0.019	개혁	0.019
Topic-4	경제	0.092	세계	0.048	글로벌	0.041	무역	0.032	회의	0.031
Topic-5	한반도	0.089	북한	0.059	해결	0.042	대화	0.029	협상	0.027
Topic-6	미국	0.132	이익	0.017	장관	0.013	최근	0.012	일부	0.012
Topic-7	외교	0.059	시진핑	0.042	유엔	0.04	주석	0.034	세계	0.03
Topic-8	공동	0.036	아시아	0.028	공동체	0.026	운명	0.024	지역	0.022
Topic-9	안보	0.048	지역	0.042	사드	0.031	전략	0.031	러시아	0.028
Topic-10	양국	0.132	시진핑	0.035	상호	0.031	중미	0.027	소통	0.022
Topic-11	교류	0.023	생각	0.021	문화	0.017	대표	0.015	인민	0.013
Topic-12	코로나	0.027	세계	0.024	사태	0.022	사회	0.02	방역	0.019

## 2. 분석과 평가

< 표 3-1 >은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로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다양한 키워드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작성법을 고려했을 때 ‘최근’, ‘일부’와 같은 단어들이 Topic 6에서 주 키워드로 나타났다. 그러나 Topic 6은 12가지 토픽 들 중 토픽이 나타나는 문서의 개수가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기에 실제적인 의미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 표 3-2 > 참조 )

또한 < 표 3-1 >에서는 ‘공동’, ‘안보’, ‘문화 교류’, ‘인민’, ‘공동체’, ‘인민의 복지’, ‘삶의 질의 향상’ 등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단어들이 빈도 높게 출현하였으며 그외 ‘생각’, ‘상호’, ‘소통’ 과 같은 단어들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공산당 19차 대표대회에서 중국은 새로운 시대 중국사회의 주요 모순을 인민의 물질문화에 대한 요구를 넘어 아름다운 삶에 대한 요구의 지속적인 증대와 현재 중국사회의 불균형, 불충분한 발전이라 보았다. 그리하여 중국은 해외홍보 플랫폼인 <인민일보> 온라인 사이트 인민망을 통해 자국이 인민의 복지와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국제사회로 비추려는 의도로 인민을 위한 복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국력의 급성장으로 세계 강대국의 위치에 올랐다. 그러나 ‘성장일변도(一邊倒)’ 전략으로 야기된 양극화, 환경문제와 같은 부작용도 함께 출현되며 중국 정부에 심각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sup>101)</sup> 중국은 21세기에 진입하며 후진타오(胡錦濤)시기부터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 ‘과학적 발전 (科學發展觀)’<sup>102)</sup>을 제시하며 사회의 평준화 발전을 추구해 왔다. 특히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중국의 꿈’을 제시하여 ‘중

101) 리단(2018), “중국외교 3.0: 시진핑 시기의 변화와 지속”, 『중국학』 제65호, pp.382-383.

102) 위키백과에서는 후진타오가 역임했던 시기 제시한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이념이라 설명한다. 과학적 사회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 복지, 인문사회주의 사회, 민주주의 증진, 궁극적인 사회주의 조화 사회 건설“이 통합되어 있으며 마르크스 주의와 현대 중국의 현실, 우리 시대의 밑바탕이 되는 특징들을 통합하고 있는 이념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3%BC%ED%95%99%EC%A0%81\\_%EB%B0%9C%EC%A0%84%EA%B4%80](https://ko.wikipedia.org/wiki/%EA%B3%BC%ED%95%99%EC%A0%81_%EB%B0%9C%EC%A0%84%EA%B4%80))

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청사진을 두 개의 목표를 통해 이루려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진핑은 국내전략에서 인민들을 위한 개혁과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려 하고 깨끗한, 청렴한 중국을 만들려한다.

그러나 시진핑의 양면성이 보이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시진핑을 신(新) 마오쩌둥이라 언급되어지기도 한다.<sup>103)</sup>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제도적 마련으로 기존 서구 중심의 리더쉽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이루고자 '신형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 '주변외교', '일대일로'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 미·중갈등 문제, 비핵화 문제 등의 현안들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육·해상을 묶는 거대 경제권 구축을 시도하려 하였지만 경제적 성과는 중국이 모두 가져가는 형태이기에 장기대여금이나 차관 등으로 인한 저소득국의 어려움은 가중되었고 부채를 이용해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sup>104)</sup>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 표 3-1 > 토픽 모델링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의 꿈' 과 관련된 일련의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실행하고 있으나 그 현실은 많은 과제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03) 이성현(2013), “특파원이 본 중국: 시진핑의 “모순의 정치””, 『성균차이나브리프』 제1권 제4호, pp.132-136.

104) “中 일대일로 지우는 美...시진핑의 중국몽 ‘시험대 [글로벌 리포트]” , 파이낸셜뉴스 2021.06.13.,<https://www.fnnews.com/news/202106132001423081> (검색일:2021.06.20.)

< 표 3-2 > 토픽이 나타난 문서 분류표

	# of documents
Topic1	46
Topic2	114
Topic3	56
Topic4	58
Topic5	145
Topic6	41
Topic7	61
Topic8	72
Topic9	54
Topic10	128
Topic11	49
Topic12	43

< 표 3-2 >은 토픽이 나타난 문서 분류표이다. 이를 통해 <인민일보> 보도에서 언급된 중국 외교정책 쟁점 순위를 확인하였다. 그 순서로는 Topic5 (145개), Topic10 (128개), Topic2 (114개), Topic8 (72개), Topic7 (61개), Topic4 (58개), Topic3(56개), Topic9 (54개), Topic11 (49개), Topic1 (46개), Topic12 (43개), Topic6 (41개) 으로 확인된다.

이렇듯 12가지로 추출되어진 토픽들은 순위를 통해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이 어떠한 토픽에 쟁점을 두고 외교정책을 펼치는가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 본 연구는 < 표 3-2 >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 문제, 중·미관계, 중국과 북한의 우호 관계, 인류운명공동체, 대국외교 등의 토픽을 얻을 수 있었다. 요컨대 시진핑 시기 중국은 평화·호혜(상호이익)를 기조로 주변국외교 전략 강화와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한 각 국가 간의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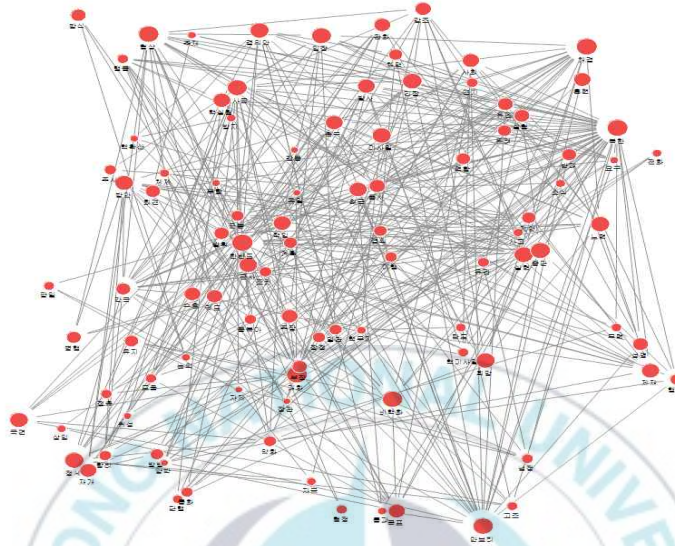
## 제3절 주요 토픽 분석 결과

### 1. 중국의 대 한반도 전략-대화와 협상 ( Topic 5 )

토픽 모델링 결과 Topic 5 문서 분류표에서 가장 많은 수의 문서를 나타내는 토픽으로서 ‘한반도’, ‘북한’, ‘해결’, ‘대화’, ‘협상’ 등으로 중심 키워드가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 그림 3-4 > Topic 5 단어 네트워크 그리고 < 표 3-3 > Topic 5 TF-IDF 기준 상위100개 단어를 통해 토픽의 키워드들을 아우를 수 있는 주제를 찾아볼 수 있었다. 단어 네트워크를 통해 각 토픽의 구성 현상을 볼 수 있으며 선의 길이, 원의 크기, 원 들 간의 거리 등 중요도가 표시 된다. 또한 본 연구는 TF-IDF 기준 상위100개 단어를 통해 단어들의 순위를 확인하였고 그 순위를 통해 Topic 5의 중요시각을 확인하였다. Topic 5 단어 네트워크와 Topic 5 TF-IDF기준 상위 100개 단어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단어들을 모았고 문장을 만들 수 있었으며 문장을 통해 주제를 파악을 할 수 있었다.

< 그림 3-4 > Topic 5 단어 네트워크를 통해 ‘한반도’, ‘안보리’, ‘협상’, ‘대화’, ‘해결’, ‘북한’ 등 단어들이 큰 원을 가진 단어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단어들과 함께 ‘사회’, ‘평화’, ‘주시’, ‘핵실험’, ‘국면’, ‘정세’, ‘촉구’ 등의 단어들이 크고 작은 원의 크기로 가깝고도 복잡하게 연결되어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림 3-4 > Topic 5 단어 네트워크



< 표 3-3 > Topic 5 TF-IDF 기준 상위100개 단어

순위	단어	TF-IDF 문서수	순위	단어	TF-IDF 문서수	순위	단어	TF-IDF 문서수	순위	단어	TF-IDF 문서수
1	사회	405	26	주상현	195	51	촉구	117	76	핵심현	58
2	대화	403	27	이행	189	52	요구	115	77	유일	54
3	해결	392	28	제안	186	53	궤도	111	78	병행	53
4	수호	367	29	조치	181	54	방법	108	79	상임	52
5	실현	367	30	반대	167	55	근본	105	80	실현	49
6	복합	347	31	긴장	161	56	우려	100	81	주시	48
7	각국	342	32	방식	160	57	재개	100	82	당일	46
8	강조	341	33	국면	159	58	성명	99	83	자회	46
9	협상	326	34	당사국	159	59	사고	98	84	유관	45
10	한반도	314	35	도움	156	60	동북아	96	85	갈등	44
11	역할	310	36	정례	154	61	제재	91	86	냉정	43
12	비핵화	297	37	계획	153	62	주재	86	87	접촉	43
13	정세	281	38	군사	149	63	행위	80	88	단행	42
14	입장	270	39	부합	144	64	통화	78	89	탄도	39
15	최근	269	40	안보리	143	65	훈련	74	90	통과	39
16	동시	267	41	장관	143	66	일관	70	91	결의	37
17	희망	242	42	미사일	135	67	결의안	68	92	고조	37
18	목표	240	43	완화	135	68	전화	67	93	무력	37
19	유엔	240	44	중단	135	69	노력	64	94	자극	35
20	책임	231	45	논의	133	70	압박	61	95	핵확산	34
21	유지	223	46	협정	131	71	채택	61	96	핵무기	31
22	발휘	222	47	합리	129	72	방지	60	97	핵미사일	30
23	행동	208	48	부장	128	73	발사	59	98	위성	28
24	방안	206	49	체제	121	74	소식	59	99	자제	26
25	견지	197	50	회견	118	75	악화	58	100	잠정	23

< 그림 3-4 >와 < 표 3-3 >을 통해 Topic5에 대한 분석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문제에 대해 ‘평화’, ‘대화’, ‘협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이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이행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은 <인민일보> 인민망 보도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한반도 정세에 긴장을 조장하는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반대 입장 밝히고 동시에 북한의 돌발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 정세의 불안전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은 ‘평화와 안전’을 한반도 전략의 최우선 목표를 가지며 북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대화과 협상’이라는 평화적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추출한 상위 5가지 토픽 중 일순위의 토픽으로 확인되는 Topic 5에 대한 분석결과는 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을 희망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가 시진핑 시기 중국의 외교정책 속 중요한 이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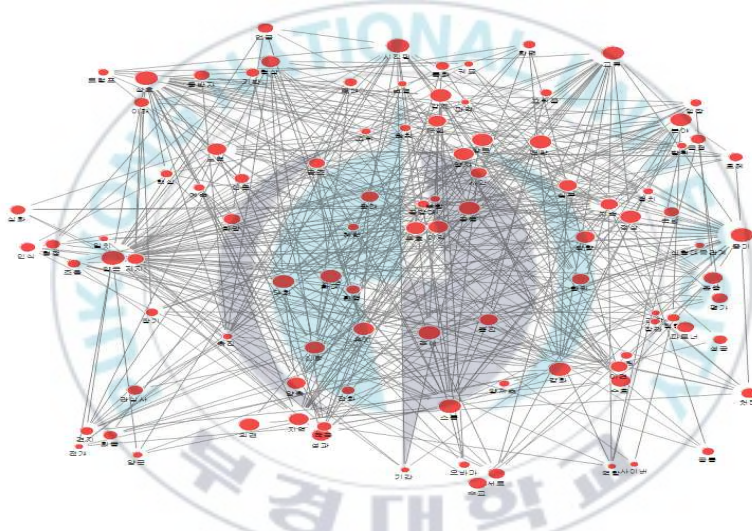
## 2. 시진핑 시기 중·미관계 ( Topic 10 )

토픽모델링 결과를 통한 Topic 10 은 문서 분류표 속 두 번째로 높이 추출된 토픽이다. Topic 10 ‘양국’, ‘시진핑’, ‘상호’, ‘중·미’, ‘소통’ 으로 키워드가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 그림 3-5 > Topic 10 단어 네트워크와 < 표 3-4 > Topic 10 TF-IDF 기준 상위100개 단어를 통해 토픽 키워드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를 확인 하였다. 단어 네트워크 속 선의 길이, 원의 크기와 원 들 간의거리 사이를 통해 각 단어들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TF-IDF 기준 상위100개 단어 들을 통해 단어들의 순위를 확인 하였고 그 순위를 통해 Topic 10 이 시사하는 중요 시각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Topic 10 단어 네트워크와 Topic 10 TF-IDF기준 상위100개 단어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단어들을 모았고 문장을 만들 수 있었으며 문장을 통

해 주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 그림 3-5 > Topic 10 단어 네트워크 에 따르면 ‘상호’, ‘적극’, ‘성과’, ‘강화’, ‘수호’ 등의 단어들이 큰 원을 가진 단어로 표시되었으며 이러한 단어들과 함께 ‘파트너’, ‘공감대’, ‘신형대국관계’, ‘희망’, ‘전략’, ‘존중’, ‘증진’, ‘호혜’ 등의 단어들이 크고 작은 크기로 멀거나 가깝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림 3-5 > Topic 10 단어 네트워크



< 표 3-4 > Topic 10 TF-IDF 기준 상위100개 단어

순위	단어	TF-IDF 문서수	순위	단어	TF-IDF 문서수	순위	단어	TF-IDF 문서수	순위	단어	TF-IDF 문서수
1	주석	414	26	희망	242	51	이해	143	76	국민	82
2	대화	403	27	긍정	233	52	장관	143	77	동반자	81
3	상호	394	28	방향	229	53	처리	136	78	중미	79
4	정상	394	29	방문	226	54	수준	134	79	통화	78
5	이익	381	30	신뢰	225	55	실무	134	80	관심사	74
6	적극	377	31	유지	223	56	열정	131	81	사안	74
7	수호	367	32	발취	222	57	심화	127	82	파악	73
8	전략	362	33	변영	203	58	서로	124	83	인식	72
9	양국	353	34	평가	202	59	환영	116	84	시진핑	70
10	강조	341	35	견치	197	60	기간	115	85	인문	67
11	협상	326	36	양측	194	61	토대	115	86	전화	67
12	강화	324	37	원칙	189	62	궤도	111	87	일치	65
13	정치	312	38	존중	181	63	한편	106	88	노력	64
14	역할	310	39	의견	176	64	조율	104	89	공통	55
15	분야	301	40	계속	172	65	호혜	103	90	집행	47
16	교류	296	41	우호	172	66	이견	102	91	회동	47
17	국민	294	42	공감대	165	67	건강	99	92	전개	46
18	지속	293	43	양자	162	68	기반	99	93	고위	37
19	성과	289	44	성공	161	69	수교	99	94	사이버	36
20	입장	270	45	언급	161	70	왕래	96	95	양제츠	32
21	촉진	269	46	파트너	159	71	트럼프	96	96	신형대국관계	26
22	확대	265	47	합의	147	72	혜택	94	97	오바마	24
23	소통	258	48	장기	146	73	위원	87	98	지역	19
24	지지	256	49	부합	144	74	고위급	84	99	양군	17
25	핵심	243	50	증진	144	75	공조	83	100	공동	2

< 그림 3-5 >와 < 표 3-4 > 에 따라 Topic 10에 대한 분석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은 <인민일보> 인민망 보도를 통해 국제사회에 중·미관계의 재정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면서 상호 간의 ‘존중’에 대한 기적으로 파트너십과 ‘호혜’ 강조하며 종합국력의 신장으로 ‘균형외교’를 추구하고자 한다. 시진핑 집권과 더불어 이러한 ‘균형외교’는 ‘신형대국관계론’으로 정리되어 최우선 외교기조로 자리 잡았으며 중국은 이를 제도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였는데 미국과는 군사적 역량 균형을 위해 러시아 등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외교를 전개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일대일로’ 전략으로 ‘서진(西進)’하고 있다.<sup>105)</sup>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상호존중’과 ‘호혜평등’을 토대로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원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대한 반대와 동시에 ‘충돌’과 ‘대항’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분석 하에 본 연구는 Topic 10에 대한 분석으로 시진핑 시기 중·미관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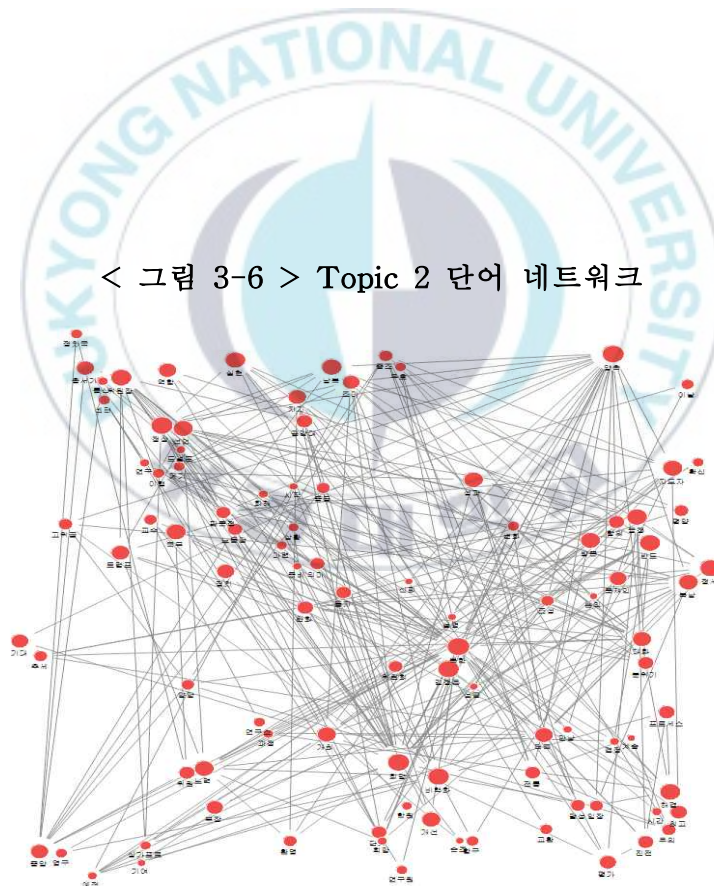
### 3. 김정은 시기 북·중 우호관계 ( Topic 2 )

토픽 모델링 결과를 통한 Topic 2는 12가지 토픽 들 중 세 번째로 많은 수를 나타내는 토픽으로 ‘북한’, ‘회담’, ‘정상’, ‘양측’, ‘김정은’ 로 키워드가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 그림 3-6 > Topic 2 단어 네트워크 그리고 < 표 3-5 > Topic 2 TF-IDF 기준 상위100개 단어를 통하여 다양한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는 토픽의 주제를 찾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단어 네트워크를 통해 각 링크의 네트워크 간 선, 원의 거리를 통해 중요도를 파악하였으며 TF-IDF 기준 상위100개 단어들을 통해 단어들의 순위를 확

105) 김관욱(2016), “미국과 중국의 외교패권경쟁”, 『국제정치연구』 제19권 제1호, p.4.

인하여 그 순위를 통해 Topic 2의 중요 시각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Topic 2 단어 네트워크와 Topic 2의 TF-IDF기준 상위100개 단어를 바탕으로 각 단어들을 모아 문장을 만들었고 문장을 통해 주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 그림 3-6 > Topic 2 단어 네트워크 에 따르면 ‘양측’, ‘남북’, ‘지도자’, ‘정세’, ‘비핵화’ 의 단어들이 큰 원을 가진 단어로 표시되었으며 이러한 단어들과 함께 ‘지지’, ‘정치’, ‘완화’, ‘희망’, ‘중앙당’, ‘실현’ 등의 단어들로 구성된 크고 작은 원이 가깝고도 복잡하게 연결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표 3-5 > Topic 2 TF-IDF 기준 상위100개 단어

순위	단어	TF-IDF 문서수	순위	단어	TF-IDF 문서수	순위	단어	TF-IDF 문서수	순위	단어	TF-IDF 문서수
1	대화	403	26	의미	183	51	시작	101	76	확신	50
2	정상	394	27	과정	180	52	프로세스	101	77	교환	48
3	해결	392	28	우호	172	53	마련	99	78	동지	48
4	적극	377	29	개선	171	54	설명	99	79	판문점	48
5	실현	367	30	기여	168	55	트럼프	96	80	통신	46
6	북한	347	31	공감대	165	56	선언	95	81	영구	43
7	정치	312	32	성공	161	57	최고	95	82	순조	42
8	역할	310	33	단계	160	58	전통	93	83	항구	42
9	비핵화	297	34	중앙	156	59	조성	92	84	북남	41
10	성과	289	35	지도자	148	60	예정	87	85	만남	38
11	정세	281	36	합의	147	61	위원	87	86	우의	37
12	입장	270	37	국무	146	62	고위급	84	87	조미	37
13	지지	256	38	완화	135	63	남북	82	88	노동당	36
14	개최	246	39	논의	133	64	연구	78	89	정치국	36
15	희망	242	40	추세	130	65	김정은	76	90	연구원	35
16	긍정	233	41	부장	128	66	분위기	75	91	화해	34
17	회담	232	42	결정	123	67	준비	74	92	연구소	33
18	방문	226	43	위원회	122	68	도널드	73	93	평양	33
19	신뢰	225	44	체제	121	69	위원장	73	94	계승	31
20	상황	216	45	시간	118	70	총서기	69	95	싱가포르	31
21	기대	204	46	환영	116	71	노력	64	96	교수	29
22	변화	202	47	계기	114	72	문재인	64	97	청와대	28
23	평가	202	48	반도	109	73	센터	61	98	학원	24
24	양측	194	49	진전	108	74	이날	55	99	양당	16
25	이행	189	50	달성	105	75	중공	55	100	중조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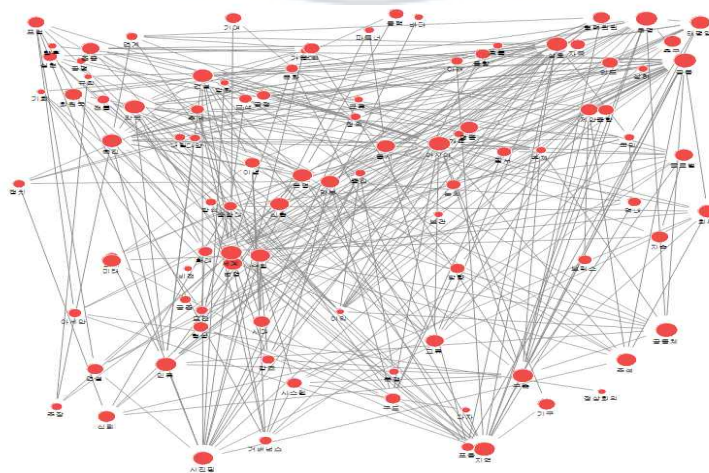
< 그림 3-6 > 와 < 표 3-5 >을 바탕으로 Topic 2 ‘김정은 시기의 북·중 우호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 핵문제가 중국과 북한 관계에서 중요한 이슈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중국은 ‘비핵화’에 대한 지지와 남북한 대화 증진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국은 <인민일보> 인민망 보도를 통해 중국과 북한 간의 우호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에서의 역할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 4. 아시아운명공동체 구축 ( Topic 8 )

토픽모델링 결과를 통한 Topic 8 은 시진핑 정부 외교정책 관련 네 번째로 문서 분류표에서 많은 수를 나타내는 토픽이며 ‘공동’, ‘아시아’, ‘공동

체’, ‘운명’, ‘지역’ 등의 단어가 주요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 그림 3-7 > Topic 8 단어 네트워크와 < 표 3-6 > Topic 8 TF-IDF 기준 상위100개 단어를 통해 중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토픽의 주제를 찾아볼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단어 네트워크를 통해 각 단어 사이의 길이, 원의 크기, 원과 원 사이 간격을 통해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TF-IDF 기준 상위100개 단어들을 통해 단어들의 순위 확인하였고 그 순위를 통해 Topic 8의 중요 시각을 확인 하였다. 본 논문은 Topic 8 단어 네트워크와 Topic 8 TF-IDF기준 상위100개 단어를 바탕으로 각 단어들을 모아 문장을 구성하였고 문장을 통해 주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 그림 3-7 > Topic 8 단어 네트워크를 통해 ‘운명’, ‘존중’, ‘아시아’, ‘글로벌’, ‘상호’의 단어들이 큰 원을 가진 단어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러한 단어들과 함께 ‘질서’, ‘기회’, ‘실현’, ‘협력·윈윈’, ‘안보’, ‘거버넌스’, ‘번영’ 등의 단어들이 크고 작은 원으로 멀거나 가깝게 복잡한 연결을 이루고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림 3-7 > Topic 8 단어 네트워크





< 표 3-6 > Topic 8 TF-IDF 기준 상위100개 단어

순위	단어	TF-IDF 문서수	순위	단어	TF-IDF 문서수	순위	단어	TF-IDF 문서수	순위	단어	TF-IDF 문서수
1	주석	414	26	시대	213	51	동력	123	76	다양	66
2	상호	394	27	변영	203	52	추구	123	77	개척	65
3	이익	381	28	주장	195	53	가운데	120	78	규칙	65
4	적극	377	29	아시아	189	54	포용	117	79	흐름	64
5	실현	367	30	제안	186	55	형성	115	80	회원국	62
6	각국	342	31	존중	181	56	질서	109	81	공존	59
7	강조	341	32	미래	174	57	신형	107	82	분쟁	53
8	구축	326	33	이념	174	58	역내	101	83	정상회의	50
9	정치	312	34	기여	168	59	태평양	100	84	인도	48
10	교류	296	35	공감대	165	60	평등	99	85	상하이	46
11	국민	294	36	수립	161	61	다자	97	86	담화	42
12	지속	293	37	방식	160	62	종합	96	87	바다	42
13	회의	287	38	파트너	159	63	전통	93	88	내일	41
14	안보	280	39	문화	156	64	구도	91	89	브릭스	37
15	인류	277	40	자국	154	65	정의	91	90	아세안	36
16	글로벌	275	41	협력원인	154	66	주제	91	91	여정	36
17	운명	272	42	거버넌스	150	67	공평	90	92	비전	33
18	촉진	269	43	도전	150	68	기구	88	93	조류	33
19	동시	267	44	시스템	144	69	문명	88	94	보관	32
20	공동체	266	45	증진	144	70	연설	88	95	상하	28
21	확대	265	46	포럼	135	71	공정	86	96	세계	21
22	건설	231	47	논의	133	72	향후	81	97	지역	19
23	방향	229	48	연계	132	73	지혜	80	98	아태	15
24	신뢰	225	49	추세	130	74	시진핑	70	99	도서	9
25	기회	219	50	모색	126	75	융합	68	100	공동	2

< 그림 3-7 >과 < 표 3-6 >을 통해 Topic 8에 대한 분석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인류운명공동체’라는 큰 기틀 내에서 ‘아시아 지역 운명공동체 구축’에 대한 의지와 입장,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진핑 시기의 중국 외교는 역대 지도부보다 주변외교를 중요시 하고 있으며 중국의 세계전략, 특히 중국과 미국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시도하는 전환점에서 중국은 아시아국가와의 관계 조정을 대외관계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아시아 운명공동체 구축’의 경제적 토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중국은 ‘아시아 운명공동체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sup>106)</sup> 중국은 <인민일보> 인민망 보도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국이 기타 국가들과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 공동체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는

106) 江時學(2018), “构建亞洲命運共同体的必要性、可行性及戰略措施”, 『亞太經濟』第3期, pp.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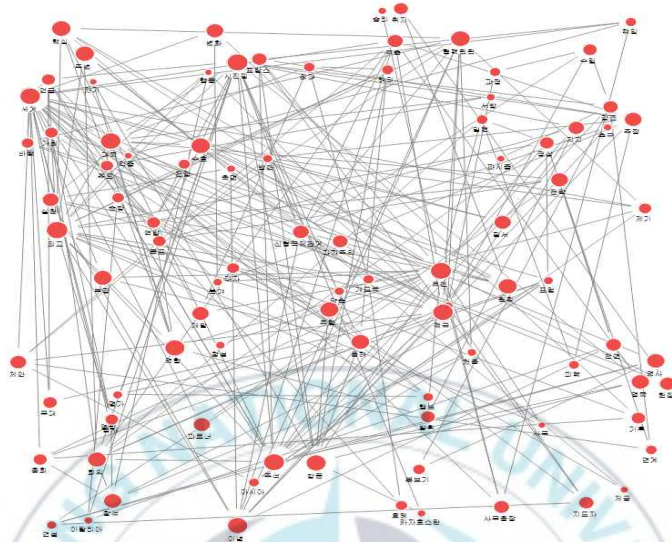
아시아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기존의 서구중심이 아닌 동아시아 중심 질서로 개척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아시아 운명공동체 구축’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원-원을 할 수 있는 지역질서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 5.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 Topic 7 )

본 논문의 토픽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Topic 7은 문서 분류 표 속 다섯 번째로 많은 문서를 나타내는 토픽이다. ‘외교’, ‘시진핑’, ‘유엔’, ‘주석’, ‘세계’가 주요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 그림 3-8 > Topic 7 단어 네트워크와 < 표 3-7 > Topic 7 TF-IDF 기준 상위 100개 단어를 통해 주요 단어들을 아우를 수 있는 토픽의 주제를 찾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단어 네트워크의 길이, 원의 크기와 간격을 통해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TF-IDF 기준 상위 100개 단어들을 통한 단어들의 순위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Topic 7의 중요 시각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는 Topic 7 단어 네트워크와 Topic 7의 TF-IDF 기준 상위100개 단어를 바탕으로 각 단어들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문장을 구성하였고 그 문장을 통해 Topic 7의 주제를 파악 할 수 있었다.

< 그림 3-8 > Topic 7 단어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 ‘외교’, ‘핵심’, ‘다자주의’, ‘이념’의 단어들이 큰 원을 가진 단어로 구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러한 단어들과 함께 ‘세계’, ‘수호’, ‘원칙’, ‘발휘’, ‘역할’, ‘강조’ 등의 단어들로 크거나 작게, 멀거나 가깝게 복잡한 연결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 그림 3-8 > Topic 7 단어 네트워크



< 표 3-7 > Topic 7 TF-IDF 기준 상위100개 단어

순위	단어	TF-IDF 문서수	순위	단어	TF-IDF 문서수	순위	단어	TF-IDF 문서수	순위	단어	TF-IDF 문서수
1	주식	414	26	참석	204	51	바탕	129	76	무대	64
2	사회	405	27	변화	202	52	부장	128	77	유럽	63
3	정상	394	28	평가	202	53	추구	123	78	피력	62
4	적극	377	29	주장	195	54	행사	113	79	취지	61
5	수호	367	30	아시아	189	55	질서	109	80	행보	58
6	전략	362	31	원칙	189	56	실천	108	81	본보기	48
7	각국	342	32	제안	186	57	로해	103	82	사무총장	46
8	강조	341	33	대국	185	58	다자	97	83	현장	46
9	구축	326	34	과정	180	59	연설	88	84	총회	44
10	외교	322	35	이념	174	60	다자주의	84	85	부각	42
11	역할	310	36	전면	173	61	전망	83	86	영국	42
12	분야	301	37	수립	161	62	처음	83	87	신형국제관계	37
13	역사	296	38	언급	161	63	해외	81	88	서방	36
14	회의	287	39	파트너	159	64	측면	80	89	일련	35
15	지지	256	40	영향	158	65	기후	79	90	순방	34
16	개최	246	41	협력원	154	66	약속	79	91	전방	32
17	핵심	243	42	개발	150	67	공헌	73	92	파시즘	30
18	목표	240	43	도전	150	68	승리	71	93	창설	28
19	유엔	240	44	주요	149	69	제기	71	94	기금	26
20	책임	231	45	지도자	148	70	각종	70	95	프랑스	26
21	올해	229	46	최대	145	71	개도국	70	96	필리핀	25
22	방문	226	47	자신	142	72	시진핑	70	97	자기	22
23	발휘	222	48	제공	141	73	역량	69	98	세계	21
24	행동	208	49	포럼	135	74	사무	67	99	카자흐스탄	15
25	방안	206	50	연계	132	75	주변	67	100	이탈리아	12

2014년 11월 28일 시진핑은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중국은 반드시 자신만의 특색을 지닌 대국 외교가 있어야 한다”는 언급으로 중국은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을 시작하였다. 2016년 3월 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이념’이 처음으로 정부 업무보고에 명시되었다. 2017년 10월 18일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표대회 보고서는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함의를 명시하였다. 즉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는 ‘신형 국제관계 구축’과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며 이는 ‘상호존중’, ‘정의’, ‘협력과 상생’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 그림 3-8 > 와 < 표 3-7 >을 바탕으로 Topic 7에 대한 분석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부분은 중국은 <인민일보> 인민망 보도를 통해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기조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신형 국제관계 구축’과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에서 ‘다자주의’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기에 Topic 7은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의 함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제4장 결론: 요약과 시사점

### 제1절 요약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부터 21세기 현재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대표대회와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시작으로 시진핑(習近平) 시대가 개막되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위대한 부흥’, ‘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평화발전’ 등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국내적 발전과 안정, 국제적으로 자국의 국력과 걸 맞는 국제적 책임과 권리, 역할을 중요시하는 시진핑 정부 자신만의 ‘중국의 꿈’을 선언하였다. 시진핑의 중국 외교는 덩샤오핑(鄧小平), 장쩌민(江澤民)의 시대와는 다르게 주도적이고 대담한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존의 도광양晦(韜光養晦)의 기조에서 화평발전(和平發展)이라는 적극적인 성향을 띄는 기조로 개념을 전환하였다.

시진핑 시기의 중국외교는 ‘신형국제관계(新型國際關係)’,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를 강조해왔다. 이러한 외교기조를 통해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상호존중’, ‘평등호혜’, ‘발전과 안전’을 공유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일대일로(一帶一路),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자국의 주권과 안전, 평화발전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외교적 행보는 국제사회에서 언급되는 중국의 패권 추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 된다. 즉 중국은 다자적인 외교 정책들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자국이 평화적이고 주변 국가들과 운명을 함께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시진핑 시기 중국의 외교정책의 쟁점을 밝혀내기 위해 중국공산당과 국가 기관지인 <인민일보> 기사를 판독하였다.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분석 기법 중 토픽모델링 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2012년 시진핑 정부 출범 시기부터 현재 2021년 까지 분석 내용으로 ‘시진핑’, ‘외교정책’, ‘인류운명공동체’, ‘주변외교’, ‘대국외교’, ‘신형국제관계’, ‘중국몽’, ‘협력원원’, ‘한반도’, ‘사드’, ‘조선(북한)’으로 키워드를 지정하였다. 총 872개의 신문기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인민일보>시진핑 시기 외교정책 핵심빈도 분석 결과 ‘중국’, ‘발전’, ‘한국’, ‘협력’, ‘양국’, ‘관계’, ‘북한’, ‘세계’, ‘국가’, ‘국제’, ‘문제’, ‘평화’, ‘경제’, ‘미국’, ‘일본’, ‘시진핑’, ‘추진’, ‘한반도’, ‘공동’, ‘지역’, ‘말’, ‘안정’, ‘건설’, ‘정상’, ‘주석’, ‘관련’, ‘외교’, ‘중요’, ‘상호’, ‘대화’의 순서로 키워드 순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중국이 한국과 북한, 미국, 일본, 한반도 순으로 대외정책의 주요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출된 단어 확인 후 핵심적 단어 추출을 위해 TF-IDF를 활용하여 핵심적 키워드를 확인 하였다. 그 결과 ‘주석’, ‘사회’, ‘대화’, ‘상호’, ‘정상’, ‘해결’, ‘이익’, ‘적극’, ‘미국’, ‘수호’, ‘실현’, ‘전략’, ‘양국’, ‘북한’, ‘각국’, ‘강조’, ‘구축’, ‘협상’, ‘강화’, ‘외교’, ‘한반도’, ‘정치’, ‘역할’, ‘분야’, ‘비핵화’, ‘교류’, ‘역사’, ‘국민’, ‘지속’, ‘성과’의 순서로 키워드 순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인민일보> 기사에 대한 TF-IDF 과정에서 나타난 행위자는 미국, 북한이며 관련 지역으로는 한반도가 중심으로 추출되어 보여졌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전략적 목표로는 ‘비핵화’였다. 이는 그 동안 중국이 한반도 전략에서 강조해 온 ‘비핵화’ 이슈와 일치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동안 중국은 ‘평화’, ‘협상’, ‘대화’ 등을 내세우며 대 한반도 전략의 기조로 강조해 왔다. 본 연구의 TF-IDF 분석 결과는 이러한 중국의 전략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 할 수 있었던 토픽모델링 결과는 다음과 같다. Topic1 “중·일 양국의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협력”: ‘일본’, ‘건설’, ‘공동’, ‘아프리카’, ‘총리’; Topic2 “김정은 시기 북·중 우호관계”: ‘북한’, ‘회담’, ‘정상’, ‘양측’, ‘김정은’; Topic3 “시진핑 신시대 중국의 개혁·개방”: ‘역사’, ‘시대’, ‘개방’, ‘인민’, ‘개혁’; Topic4 “글로벌시대 중국의 경제 무역 관계”: ‘경제’,

‘세계’, ‘글로벌’, ‘무역’, ‘회의’; Topic5 “중국의 대 한반도 전략-대화과 협상”: ‘한반도’, ‘북한’, ‘해결’, ‘대화’, ‘협상’; Topic6 “중·미 양국의 국익 협상과 대화”: ‘미국’, ‘이익’, ‘장관’, ‘최근’, ‘일부’; Topic7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외교’, ‘시진핑’, ‘유엔’, ‘주석’, ‘세계’; Topic8 “아시아운명공동체 구축”: ‘공동’, ‘아시아’, ‘공동체’, ‘운명’, ‘지역’; Topic9 “사드 배치와 지역 안보 질서”: ‘안보’, ‘지역’, ‘사드’, ‘전략’, ‘러시아’; Topic10 “시진핑 시기 중·미관계”: ‘양국’, ‘시진핑’, ‘상호’, ‘중미’, ‘소통’; Topic11 “중국의 인문·문화 교류”: ‘교류’, ‘생각’, ‘문화’, ‘대표’, ‘인민’ ; Topic12 “팬데믹과 중국의 코로나 방역 외교”: ‘코로나’, ‘세계’, ‘사태’, ‘사회’, ‘방역’ 으로 추출되어졌다.

토픽이 나타난 문서 분류표를 통해 12개의 토픽들은 순위, 즉 중요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상위에 5가지 주요 토픽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요 토픽은 다음과 같다. Topic5 (중국의 대 한반도 전략-대화과 협상), Topic10 (시진핑 시기 중·미 관계), Topic2 (김정은 시기 북·중 우호관계), Topic8 (아시아운명공동체 구축), Topic7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로 한반도와 남북한 관련 키워드로 얽혀있으며 ‘중국의 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프로젝트와 관련된 시진핑 시기 중국 대외정책과 관련한 주요 토픽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중국은 <인민일보> 기사를 통해 자국의 두 개의 목표를 통한 새로운 시대의 중국, 새로운 국제질서 성립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려 하지만 중국이 현재까지 이룬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 중국이 직면해 있는 남중국해 문제, 중·미 갈등문제, 비핵화 문제 등의 현안들이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일련의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실행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과제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

## 제2절 한국의 대외정책에 주는 시사점

현 시진핑 정부는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책임 있는 대국’, ‘신형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 ‘주변외교’ 를 통해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자 하며 평화 발전과 협력을 통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고 있다. ‘중국의 꿈’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지속성, 정당성에 대한 의문들에 대해 지우고자 하며 중국의 재건과 개혁, 세계적 국가의 구성원 입장에서 중국인들의 물질적 풍요와 중국식 사회주의 발전의 내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sup>107)</sup>

중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목소리를 내며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부합되는 중국의 외교로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러한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는 기존 서구 중심적 리더쉽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이루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자국의 이미지 제고와 규범과 담론을 바꿔나가려 하는 태도<sup>108)</sup>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14개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에 덩치는 크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정학적으로 결코 좋은 위치가 아니다.<sup>109)</sup> 중국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 북한 핵문제 등과 같은 이슈들을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에 ‘주변외교’를 통해 상대국들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외교를 선보이고 있다. 중국은 ‘호혜·협력’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등 글로벌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이끌었다고 언급하고 한다.<sup>110)</sup>

107) Gerard Lemos(2012), “The End of the chinese Dream: Why Chinese People Fear the Future” ,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홍건식 (2018), “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책적 정치: 일대일로,AIIB 그리고 패권정체성”, 『국제정치논총』 제58권 제1호, pp.101-102, 재인용

108) 서정경 (2018), “시진핑 2기 정부의 외교전망 -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 정치보고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4권 제1호, pp.10-20.

109) “땅·강·바다 사방에서 노려본다... 중국의 敵, 미국뿐일까”, 중앙일보 2020.08.02., 'https://news.joins.com/article/23838940 (검색일:2021.05.17.)

110) “왕이, 중국,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중류지주로 등극”, 인민일보 인명망 한국채널 2019.12.26

http://kr.people.com.cn/n3/2019/1226/c203219-9644006.html (검색일:2021.01.26.)



또한 다차원적인 외교를 통해 중국은 중국만의 특색 있는 외교를 통해 과거 서구적 패권주의와는 다른 평화적 외교를 하겠다 주장하며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언급한다.<sup>111)</sup> 그러나 소프트 파워에 의해 뒷받침 되지 못하는 하드파워는 패권주의로 밖에 인식 되지 않는다.<sup>112)</sup>

현재 중국은 꾸준히 미국과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면에서 대치하며 그들의 목표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의견들을 보여주며 패권주의를 부정적인 면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패권 정체성 정치<sup>113)</sup>, 일대일로 사업 추진 상 중국 패권주의 성향이 나타나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인프라 구축, 수단으로 일대일로가 중국의 패권주의를 포장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sup>114)</sup>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한국의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현재의 중·미 갈등관계 속에서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한반도, 동북아지역, 나아가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입지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한국은 자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능동적인 대외정책 대처 방안을 지혜롭게 꾸려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 한국은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확인하고 앞장에서 설명되어지는 토픽모델링 분석결과를 통해 한국의 대외정책에 주는 시사

111) 정재호(2011),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390. ; 최재덕(2018), “일대일로의 이론과 실제 : 중국의 지역패권주의 강화와 일대일로 사업추진에서 발생한 한계점”,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제3호, p.27. 재인용

112) 황재호(2020), “수교 이후 한중관계의 평가와 신형관계(新型關係)를 위한 정책제언”, 『아시아문화연구』 제53권, pp.187-209.

113) 홍건식(2018) “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체성 정치” 에서 중국에서 시진핑 정부가 언급하는 평화발전을 토대로 취하며 책임과 권리, 역할을 중요성을 띠는 전임 지도부와 다른 신지도부 만의 중국몽(中國夢)을 국제 사회에서 중국 위치 찾기에 설명하면서 중국의 국가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고 중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국가들에게 공공재 제공, 상호교류과정을 통한 역내 경제 패권국가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패권 정체성 정치를 한다고 언급하며 패권 정체성에 대해서는 패권 국가로서 역할을 이행하려는 의지와 타국과의 관계 속 상호의존, 공동운명, 동질성, 자기억제 과정을 반복하며 자국의 역할과 사회적 정체성을 패권국가로 새롭게 재구성하는 정치적 행위를 뜻한다고 설명한다.

114) 최재덕(2018), 앞의 글, p.34.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1. 한반도 정세에 대한 안정적·능동적 관리

본 연구가 <인민일보> 기사에 대한 토픽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의 관계보다는 한반도 쟁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한국’보다 ‘북한’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지리적 근접성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항일 투쟁의 경험, 6.25전쟁 참전<sup>115)</sup> 등의 바탕으로 오랜 동맹관계를 지속해 왔다. 중국은 북한의 지정학적·지경학적 가치에 대해 상당히 높이 보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문제 해결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안 준수와 함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인민일보> 기사 토픽모델링 결과 토픽 중 한반도 관련 주제로 이루고 있는 토픽의 중요키워드로 ‘대화’, ‘해결’, ‘수호’, ‘실현’, ‘한반도’, ‘역할’, ‘희망’, ‘책임’과 같은 단어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주력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국 사회의 안정적 발전과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태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행위자로서 ‘한국’ 보다는 ‘미국’과 ‘북한’을 더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때 ‘북핵 문제’라 이야기하기보다 ‘한반도의 비핵화’라 표현하였다. 즉 중국은 북한의 ‘핵’만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닌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들어오는 일체의 핵 무력 자산 같은 것들에 대해서까지 문제로 제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16)</sup>

115) 김천기(2017), “중국의 대북정책 연구 -후진타오 시진핑 정부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116) 나영주(2020), “중국의 한반도 정세 관리와 역할 변화”, 『국제정치연구』 제 23권 제1호, p.235. 재인용.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역할자로 미국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선 동아시아 지역의 일정한 긴장을 제공하는 지렛대 역할로서 한반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미국은 북한의 핵을 이유 삼아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강화 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서 중·미 협력이 멀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형세를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에 한국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며 관계 악화를 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적인 문제인 북핵·미사일 문제와 같은 현안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핵심적 요인<sup>117)</sup>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기에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한국은 주동성을 잃으면 안 될 것이다. 중·미 패권 구도에는 ‘한반도 문제’가 연관 되어 있기에 남과 북은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협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한국은 끌려가는 역할자 아닌 자주적이고 주동적인 역할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 2. 한·중 관계의 내실화 추구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한·중 관계는 세계외교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는 높은 평가를 받는 시기가 있었지만 중·미 간의 갈등으로 인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sup>118)</sup> 사드(THAAD) 배치로 한·중 양국 관계는 최악을 맞았지만 양국은 점차 관계를 회복하며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상호협력,

117) 정종원(2014), “북핵위기와 중국의 대북정책변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6.

118) “[中 공산당 100년] 韓 中수교30년...흔들리는 안미경중” 매일일보, 2021.06.27.,<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40743>  
(검색일:2021.07.04)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 시켜 나가려 노력<sup>119)</sup>하는 제스처를 많이 느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토픽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인민일보> 기사 속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발전보다 한반도 정세와 북한, 그리고 중·미 관계, 중국 특색 대국외교 등의 내용에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천안함사건<sup>120)</sup>, 연평도 포격 사건<sup>121)</sup> 사드배치<sup>122)</sup>, 북한 비핵화, 역사문제, 중국어선의 불법적 조업, 문화재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간간히 찾아 볼 수 있었으며<sup>123)</sup> 요컨대 양국 관계는 경제·정치·외교·안보 관계의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스스로 백년의 역사적 전환점(百年大變局)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며 국제사회에서 발언권 확대, 리더쉽 발휘 등 새로운 국제관계 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주변의 교 강화를 위하여 ‘지역운명공동체 구축’을 제창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은 중국의 지역전략과 세계전략에 대한 정확한 판독이 필요하며 한·중관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이는 대외 홍보, 가시적인 관계발전 뿐만 아니라 내실화에 입각한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19) “송영길, 中 싱하이핑에 ‘시진핑 방한 성사돼 한중관계 발전하길’ ” 뉴시스 2021.06.22.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2\\_0001484845&cID=10301&pID=103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2_0001484845&cID=10301&pID=10300)  
(검색일:2021.07.04)

120) 2010년 3월 발생한 사건으로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이다

121) 2010년 11월 발생한 사건으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육,해,공 연합 훈련을 핑계로 섬마을 연평도에 170발의 포탄을 사용해 포격한 사건이다.

122)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대응한다는 명목하에 사드를 경부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하였다. 사드 배치 후 중국은 미국이 운영하기에 자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직접적으로 침해가 되는 것이라 언급하며 한국에 경제보복과 외교적 마찰을 일으켰다.

123) 황재호(2020), 앞의 글, pp.192-194.

### 3. 한·미 동맹관계의 안정화 관리

한·미 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적 가치를 공유하며 현재 보다 성숙한 동맹관계로의 발전<sup>124)</sup>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과 미국의 국제질서 긴장과 무역 분쟁이 심화되어지고 있는 시기에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경쟁자가 아닌 적국이라고 규정<sup>125)</sup> 짓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사이에서의 선택적 딜레마를 겪게 될 수 있다.<sup>126)</sup>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에 있어 오늘날의 한·미 동맹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핵심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sup>127)</sup>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대적 제재를 이행함에 있어 한국, 일본은 물론이며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sup>128)</sup>하고 있다. 그렇기에 한반도의 평화를 중시하는 한국 정부는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과 복잡성, 동맹 간의 세력 균형을 위한 정치적 요인들을 잊지 않고 한반도와 관계되어지는 국가들 간의 국제정치 간 새로운 이론 접근이 필요하다.<sup>129)</sup>

트럼프 시기의 고립주의를 벗어나 바이든 정부는 다시 다자주의로의 회귀로 동맹국 간의 연계와 협력 강화를 확보하는 것을 중시<sup>130)</sup>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한반도의 지형과 한국, 그리고 미국, 중국 과

124) “한미 관계 역사”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39640&cid=43938&categoryId=43958>  
(검색일:2021.07.11)

125) Washington Post, January 19,2021. ; 박병광(2021), “바이든 행정부하 한미 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 제116권 p.4. 재인용

126) 박병광(2021), “바이든 행정부하 한미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 제116권, p.7.

127) 한기호(2020), “한미동맹이 남북한 라이벌리(rivalry)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숙적 이론과 동맹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9권 제2호, pp.293-337.

128) 박병광(2021), 앞의 글, p.5.

129) 한기호(2020), 앞의 글, pp.302-303. 재인용.

13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2020), 『한반도 정세: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경남대학교 출판부 p.6.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해결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한반도 정세관리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한국문헌

#### <단행본>

- 김승연·정용주(2017), 『처음 배우는 머신러닝』, 한빛미디어
- 백영민(2017), 『R을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파주: 한울 아카데미
- 신동희(2016). 『컴퓨터이셔널 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쿠지라 히코우즈쿠에(2017), 『파이썬을 이용한 머신러닝, 딥러닝 실전 개발 입문』, 위키북스
- 자오찬성(2001), 『중국의 외교정책 미시·거시연계접근분석』, 도서출판 오름
- Galit Shmueli, Peter C.Bruce Inbal Yahav,Nitin R.Patel Kenneth C. Lichtendahl Jr.(2018),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위한 데이터마이닝 R EDITION』, 이엔비플러스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2020), 『한반도 정세: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경남대학교 출판부
- 사이람, 『Net-miner를 이용한 소셜네트워크 분석- 텍스트네트워크 분석 교육』, CYRAM

#### <연구논문>

- 강주연·이이든(2019),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청소년상담1388’ 빅데이터 분석: 2011~2018 네이버 지식iN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제27권 제2호.
- 고영은(2020), “미중 패권 갈등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신학과 목회』 제 54권.
- 김관옥(2016), “미국과 중국의 외교패권경쟁“, 『국제정치연구』 제19권 제1호.
- 김준형 (2012), “G2 관계 변화와 미국의 대중정책의 딜레마”, 『국가전략』 제18권 제1호 .
- 김정아·채백(2008), “언론의 정치 성향과 프레임”, 『한국언론정보학보』 제41권.
- 김흥규(2015),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사조의 변화와 함의”, 『신아세

아』 제22권 제4호.

김홍규(2011), “한중 수교 20주년과 한중관계 평가: 미래 한중관계를 위한 방향과 더불어”,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9권 제3호.

계희열·김선택·장영수(2001), “매스미디어의 발전과 기본권 보장”, 『헌법학연구』 제7권 제4호.

나영주(2020), “중국의 한반도 정세 관리와 역할 변화”, 『국제정치연구』 제23권 제1호.

리단(2018), “중국외교 3.0: 시진핑 시기의 변화와 지속”, 『중국학』 제65호.

박대민(2013), “뉴스 기사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서 뉴스정보원연결망분석”, 『한국언론학보』 제57권 제6호.

박병광(2013),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정책”, 『전략연구』 제60권.

박병광(2021), “바이든 행정부하 한미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 제116권.

박상언·이병량(2017),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한국 문화정책 연구 경향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4권 제3호.

박휘락(2020),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기대와 현실 간 격차 분석”, 『아시아연구』 제23권 제4호.

서정경 (2018), “시진핑 2기 정부의 외교전망 -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 정치보고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4권 제1호.

설진아·남궁강(2007), “<6자회담> 에 관한 텔레비전 외교뉴스 분석”, 『한국방송학보』 제21권 제4호.

송지성·안병진(2020), “TF-IDF 알고리즘의 분석법을 활용한 브랜드 디자인 프로세스 개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6권 제1호.

신상진(2017), “시진핑 집권 1기 중국의 대북정책 조정: 중미관계 변화와 관련”, 『통일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이동률(2012), “시진핑체제 외교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를 중심으로”, 『아태지역 중소연구』 제36권 제4호.

이문기(2018), “시진핑시기 ‘중국의 꿈’, 국내정치 맥락과 대외정책의 변화”,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6권 제1호.

이영학 (2013), “중국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외정책 전망”, 『아태연구』 제 20권 제1호.



- 이상현(2013),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협력”, 『전략연구』 제60권.
- 이성현(2013), “특파원이 본 중국: 시진핑의 “모순의 정치””, 『성균차이나브리프』 제1권 제4호.
- 이순임·강병환(2015), “시진핑 출범 이후 중국 방송정책의 특징과 변화”,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19권 제4호.
- 이수정·최두영 (2020), “사회과학을 위한 양적 텍스트 마이닝: 이주, 이민 키워드 논문 및 언론기사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5호.
- 이수상(2015), “독후감 텍스트의 토픽모델링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7권 제4호.
- 이상률·이준웅(2014), “프레임 경쟁에 따른 언론의 보도 전략: 언론의 기사 근거 제공과 익명정보원 사용”, 『한국언론학보』 제58권 제3호.
- 이종화·이문봉·김종원(2019), “TF-IDF를 활용한 한글 자연어 처리 연구”, 『정보시스템연구』 제28권 제3호.
- 이정남(2014),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인터넷 여론의 역할”, 『아태연구』 제21권 제3호.
- 이재봉 (2013), “중미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한국동북아논총』 제66권.
- 이효준·조시현·성지원·서형준(2019),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동향”,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제2019권 제0호.
- 이희옥(2009), “한국에서의 중국 부상의 성격: 시각과 실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5권 제4호.
- 이희옥(2012), “중국의 부상과 한중관계의 새로운 위상”,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제4호.
- 유동원(2017), “시진핑시기 중국외교정책 분석- 역할이론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25권 제4호.
- 양카이·정정주(2015), “중국언론의 한류보도 프레임연구 2009~2014년 인민일보, 중국청년보, 신민만보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5권 제2호.
- 장투오성(2017), “동아시아에서의 사드 갈등: 중국의 관점”, 『동아시아재단』 제77호.
- 정귀화 (2015), “중국의 외교정책과 한중관계”, 『대한정치학회보』 제23권 제3호.
- 진미르·고호경(2019),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한 수학교육 연구 주제 분석”, 『수

학교육논문집』 제33권 제3회.

전미선·조원희(2019), “정책형성의 과정에서 전략(strategy), 전술(tactic), 프레임과 프레이밍의 동태성(dynamics):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1호.

조태호(2001), “텍스트 마이닝의 개념과 응용”, 『지식정보인프라』 제5권.

하도영(2012), “시진핑 시대의 중국 대외정책 전망”, 『국제관계연구』 제17권 제1호.

허재철(2014),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 현상 분석: 신설 기구와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8권 제2호.

한강우(2019), “習近平 집권1·2기 권력집중화 양상 비교 분석-人民日報 1면 보도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제22권 제2호.

한기호(2020), “한미동맹이 남북한 라이벌리(rivalry)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속적 이론과 동맹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9권 제2호.

한상진(2011),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아시아리뷰』 제1권 제2호.

홍건식(2018), “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체적 정치: 일대일로, AIIB 그리고 패권정체성”, 『국제정치논총』 제58권 제1호.

황재호(2020), “수교 이후 한중관계의 평가와 신형관계(新型關係)를 위한 정책제언”, 『아시아문화연구』 제53권.

최재덕(2018), “일대일로의 이론과 실제 : 중국의 지역패권주의 강화와 일대일로 사업추진에서 발생한 한계점”,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제3호.

최진호·이해수·진은형(2019), “4차산업혁명에 관한 뉴스 빅데이터 활용 토픽 분석: 언론사 유형 및 주요시기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제36권 제2호.

## <학위논문>

강윤주(2019), “토픽 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한 국내 무용학 연구 분야 탐색”,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천기(2017), “중국의 대북정책 연구 -후진타오 시진핑 정부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중호 (2016), “중국 언론보도에 나타난 중국의 대(對)한반도 외교 인식변화 : 인

민(人民)일보와 광명(光明)일보 중심으로”,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형태(2018),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품질혁신 방법론 연구 : 디스플레이 제품의 불량개선 사례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지혜(2018),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보건학 분야 국내학술지 연구동향 분석”, 고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민순(2011), “중국 언론체제의 특성과 언론환경의 변화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양(2019), “중국 인민일보 미디어 의제에 관한 연구 - 공식웨이보와 종이신문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양(2020), “중국 언론의 성폭력 사건 보도 분석: <인민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돈구(2019), “시진핑 시기 중국의 “新국제질서” 구축시도에 관한 연구 -“신형대국관계” 제기의 배경과 전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혜리(2020),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소비자 상담 내용의 연구- 자동차 보험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가영(2020), “『경제연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한 북한 경제정책 변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윤정(2019),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노동신문 핵실험 관련 보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호민(2021),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레스토랑 고객의 감성분석에 관한 연구: 외래관광객의 온라인 리뷰 빅데이터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종원(2014), “북핵위기와 중국의 대북정책변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승진(2018), “비정형 데이터의 의미 확장과 그래프 모델링을 이용한 개선된 소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해외문헌

### (영어)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Griffiths, T. L., & Steyvers, M. (2004). "Finding scientific topic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1.

Feldman, R & Dagan, I. (1995), "Knowledge discovery in textual databases", 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KDD), 95.

### (중국어)

何迪·田惠敏(2021), "中國對非洲開展第三方市場合作的潛力研究——基于中日合作視角", 『海外投資与出口信貸』第4期.

姜龍范(2020), "文在寅執政前后影響中韓關係的核心議題及化解方策", 『東疆學刊』第37卷第4期.

江時學(2018), "构建亞洲命運共同体的必要性、可行性及戰略措施", 『亞太經濟』第3期.

孟月明·王毅男(2020), "2019 ~ 2020年中韓關係: 回顧与展望", 『当代韓國』第1期.

齊桐萱(2020), "中韓關係的改善限度", 『國際政治科學』第1期.

阮宗澤(2016), "人類命運共同体: 中國的“世界夢”", 『國際問題研究』第1期.

王毅(2015), "构建以合作共贏為核心的新型國際關係", 『國際問題研究』第3期.

王義桅(2021), "中外人文交流如何服務构建人類命運共同体?", 『世界教育信息』第2期.

楊浩勉(2017), "中國特色大國外交理論的构建方向", 『現代國際關係』第3期.

楊楊·郭立橋(2019), "新型國際關係內涵的演變及原因探析", 『國際觀察』第1期.

楊浩勉(2017), "中國特色大國外交戰略思想的發展和挑戰", 『同濟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28卷第4期.

- 楊浩勉(2018), “新時代中國外交的戰略思維和謀划”, 『外交評論』, 第1期.
- 周方銀(2014), “周邊環境走向與中國的周邊戰略選擇”, 『外交評論』 第1期.
- 周安平(2018), “人類命運共同體概探討”, 『法學評論(雙月刊)』 第4期(總第210期).
- 張貴洪·王悅(2020), “論當代中國特色國際組織外交的主要特點 - 以世界衛生組織為例”, 『國際觀察』 第4期.
- 朱鋒(2011), “中美關係與東亞安全秩序: 調整和變革” 『國際政治研究』 第1期.
- 趙立新(2020) “中韓關係: 能否迎來“第二個春天”?”, 『延邊大學學報』 第53卷 第2期.

### 3. 기타자료

- 이남주·문익준·안치영·유동원·장윤미(2020),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와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20권 제3호.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63247&cid=42346&categoryId=42346> ,
- “언론” 네이버 국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95201&cid=46668&categoryId=46668>
- “텍스트마이닝” 네이버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210334&cid=42346&categoryId=42346>,
- “한미 관계 약사”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39640&cid=43938&categoryId=43958>
- “과학적발전”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3%BC%ED%95%99%EC%A0%81\\_%EB%B0%9C%EC%A0%84%EA%B4%80](https://ko.wikipedia.org/wiki/%EA%B3%BC%ED%95%99%EC%A0%81_%EB%B0%9C%EC%A0%84%EA%B4%80)
- “넷마이너 홈페이지” <http://www.netminer.com/main/main-read.do>
- “시진핑, 중단없는 ‘중국몽’ 강조...“어떤 세력도 막을수 없다” ” 파이낸셜 뉴스, 2019.10.01.<https://www.fnnews.com/news/201910011735519714>,
- “인민망(people.com.cn)소개” 2018.3.21.,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어판 사이트  
<http://kr.people.com.cn/n3/2018/0521/c414238-9462380.html> (검색일2021.03.30.)
- “왕이, 중국,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중류지주로 등극”,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채널 2019.12.26 <http://kr.people.com.cn/n3/2019/1226/c203219-9644006.html>  
(검색일:2021.01.26.)

“땅·강·바다 사방에서 노려본다... 중국의 敵, 미국뿐일까”, 중앙일보 2020.08.02.,  
<https://news.joins.com/article/23838940> (검색일:2021.05.17.)

“천안함 피격사건”, 대한민국 해군 사이트  
[http://www.navy.mil.kr/mbshome/mbs/navy/subview.do?id=navy\\_060409010000](http://www.navy.mil.kr/mbshome/mbs/navy/subview.do?id=navy_060409010000)  
(검색일:2021.05.16)

“중국, 러시아, 미국의 사드 배치 ‘북한 핵위협을 이유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러의 전략적 안보와 전세계 전략적 안정을 해친다’”,  
연합매일뉴스 2017.04.27.  
<http://www.y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6> (검색일 2021.05.21.)

“中, ‘한류 제한령’ 해제 여전히 ‘미적’...한중 문화 교류의 해 ‘무색’”, YTN 2021.  
04.04 [https://www.ytn.co.kr/\\_ln/0104\\_202104041808482058](https://www.ytn.co.kr/_ln/0104_202104041808482058) (검색일 2021.05.22.)

“中 일대일로 지우는 美...시진핑의 중국몽 ‘시험대 [글로벌 리포트’”, 파이낸셜뉴  
스,2021.06.13.,<https://www.fnnews.com/news/202106132001423081>(검색  
일:2021.06.20.)

“[中 공산당 100년] 韓 中수교30년...흔들리는 안미경증” 매일일보,  
2021.06.27.,<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40743>  
(검색일:2021.07.04.)

“송영길, 中 싱하이밍에 ‘시진핑 방한 성사돼 한중관계 발전하길’ ” 뉴시스  
2021.06.22.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2\\_0001484845&cID=10301&pID=103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2_0001484845&cID=10301&pID=10300)(검색일:2021.07.04.)

“新時代推進改革開放的偉大成就和歷史地位”,中國日報网, 2018.12.20.  
(<https://baijiahao.baidu.com/s?id=1620380104487607994&wfr=spider&for=pc>)

“習近平爲核心党中央領導改革開放紀實”, 新華社, 2018.12.16.  
(<https://baijiahao.baidu.com/s?id=1619993111558092343&wfr=spider&for=pc>)

“如何看待朝鮮半島局勢? 趙立堅: 希望各方通過對話協商解決問題”,中國經濟网,  
2020.06.24. (<https://baijiahao.baidu.com/s?id=1670391118764673275&wfr=spider&for=pc>)

王輝耀, “构建亞洲命運共同体 ”,  
2018.07.15.([https://www.sohu.com/a/241276488\\_162758](https://www.sohu.com/a/241276488_162758))

A Study on China's Foreign Policy in the Period of Xi Jinping  
- Focusing on Text Mining Analysis on the Articles of <People's Daily>

KIM, Da-In

Department of Chinese Studies,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China has been steadily growing since its Economic reform and Open-up Policy in 1978. The era of Xi Jinping(習近平) began with the 18th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12th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Xi Jinping government has maintained its stance of 'Great Revival of China,' 'Building a Full Well-Off Society,' and 'Peace Development.' Xi Jinping declared the 'China Dream' of the Xi Jinping government, which values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rights and roles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power. Xi Jinping's Chinese diplomacy, unlike the existing leadership, is pursuing a leading and bold foreign policy, and the policy stance has changed from TaoGuang YangHui((韬光養晦) hide one's capabilities and bide one's time) to Peaceful Rise(和平發展).

Chinese diplomacy during Xi Jinping's period has emphasized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ommunity of Shared Destiny.' Through this diplomatic stance, China claims to share mutual respect, equality, development and safety with other countries, and values the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its sovereignty, safety and peaceful development through the specific global governance. Such a diplomatic move by China is analyzed as a strategy to address concerns over China's pursuit of hegemony, which is mention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hina's strategy calls for a change in the world order, requiring an objective evaluation of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in international community relations.

Thus, the researcher selected the <People's Daily> as the best way to

understand the foreign policy of the Xi Jinping government. The <People's Daily> was the subject of analysis in this paper because it expresses the posi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government and reports based on the party's policies. Through the 'People's Network', an Internet site of the <People's Daily>, a total of 872 articles were collected, focusing on the Xi Jinping government's foreign policy keywords ( 'Xi Jinping', 'Foreign policy', 'Community of Shared Destiny for mankind', 'Diplomacy with neighboring nations', 'Great Power Diplomacy',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China Dream', 'Win-win Cooperation', 'Korean Peninsula', 'THAAD', 'North Korea' )

With the advent of the big data era, social science research, such as education, media, tourism, and society, is actively introducing big data research methods. Since the existing research methods of foreign policy are focused on qual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it is believed that the data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will provide objective analysis as well as new implications for the Chinese foreign policy research method. Under this background, Text Mining, Topic Modeling (LDA-based) analysis techniques focusing on text during mining analysis were used. After data preprocessing, word-filtering, and node-filtering of <People's Daily> article and Topic Modeling (LDA-based) analysis techniques were performed sequentially. A total of 12 topics were selected and named according to the topic. This study analyzed five topics with high ranking among 12 topics through indicators such as topic modeling analysis, topic document classification, and topic-related network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organized into Topic 5 (China's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 Topic 10 (China-U.S. relations during the Xi Jinping period), Topic 2 (North Korea-China friendly relations during the Kim Jung-un period), Topic 8 (Constructing an Asian Community of Shares Destiny), and Topic 7 (China's Distinctive Great Power Diplomacy). The above results are intertwined with keywords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two Koreas and consist of major topics related to China's foreign policy during the Xi Jinping period related to the projects 'China Dream' and 'The Great Revival of the Chinese People.' With the results and analysis obtained from the research of this paper, this paper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s foreign policy.